



大洲建設株式會社

●대주주력(주) ●대주토건(주) ●(주)대주콘도 ●투윌제철산업(주) ●(주)대주 ●동양상호신용금고(주) ●G.M.D ●재단법인 유진음악문화재단 ●공주방송

.....

- 6 특집/전국여성단체 지도자 연수-주제강연 I
한국인의 재산관을 고쳐야 한다./박 승
- 10 특집/전국여성단체 지도자 연수-주제강연 II
생활에서의 경제 정의 실현/유재현
- 18 특집/전국여성단체 지도자 연수-종합토론
향후 여성단체 사업방향
- 21 매스컴에 비친 여성
삼각관계로 얼룩진 주간드라마/박연미
- 24 회원단체를 찾아서
한일여성친선협회
- 26 해외여성통신
몽골의회, 여성의 날을 어린이 날과 통합/이영남
- 30 여성학 지상강좌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과제/김선옥
- 33 초점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하여
- 38 북경 세계여성회의로 가는 길①
'95 NGO 포럼 사전조정회의 참가보고/이연숙
- 41 북경 세계 여성회의로 가는 길②
제 39차 여성지위위원회 주제강연/젤트루드 몽젤라
- 47 소비자 정보
무료예식장 개방시설 현황
- 52 여성계동향/이구경
합의회소식
- 56 우리들의 광장

지금은 경쟁력의 시대

박효신 (한국광고주협회 홍보부장)

얼마 전 한 경제기관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7개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목적은 WTO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당면한 한국이 세계경제전쟁에서 승자가 되기위하여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우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 보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의 평가는 우리 제품이 수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있고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대통령이 세계를 돌며 정상들과 회담을 하고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이름을 떨쳤고 이쯤이면 세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런 것이었다. 그들은 도대체 한국에 대해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뉴욕의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MASH', '싼 물건', '한국전쟁', '일본 같이 될 나라' 그리고 대부분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다. 'MASH'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미국병사들의 생활을 코믹하게 다룬 TV시리즈물이었다. 한국이 좋게 반영된 영화는 아니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도 중국보다 떨어졌다.

조사 결과 그 동안의 정책의 허점도 드러나고, 사실과 다르게 한국이 소개된 부분도 드러나고, 또한 우리가 몰랐던 과신하고 있었던 우리의 실상도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조사를 토대로 한국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PR전략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우선, 나를 알아야 적을 이긴다고 했다. 그야말로 경쟁의 시대이다. 국가도 개인도 경쟁력을 잃게 되면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도 자신에 대한 냉엄한 경쟁력의 체점표가 아닐까 한다. 자신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경쟁력도 없으면서 스스로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경쟁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쟁력이 강한 부분은 살리고 취약한 부분은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해 달라'고 외쳐왔다. 이제 사회가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제는 양에서 질의 경쟁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한국' 하면 '싼 물건'이 떠오르듯, '여성' 하면 '싼 임금'이 떠올라서는 안 되겠다. 질적인 면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여성들 개개인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법이나 제도 면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여성단체나 여성 리더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그분들에게 맡기고, 현장에서 뛰는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일에 대한 프로 정신을 갖고 능력을 인정받고, 일로써堂堂하게 대접받는 것이다.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여성 전체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앞으로 올 여성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 지를 결정할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특집

전국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한국인의 재산관을 고쳐야 한다

— 세계화와 여성의 의식개혁 —

박 승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경제 수준과 의식구조간에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데 있다. 경제 성장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8천달러까지 신장했는데 반해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은 아직도 3백달러나 5백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리들의 의식구조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하게 고쳐야 할 것은 재산관의 문제이다.



후진적 재산관은 선진화의 걸림돌

우리의 사회는 현재 여러가지 면에서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다. 경제 정치 사회 또는 여성문제 등 각 분야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경제력인가. 아니면 생활수준의 차이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니며 문제는 의식구조의 후진성이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이나 역사발전에서 있어서의 특징은 압축 발전이라는 점이다. 압축발전이란 우리 조상들이 천년동안 일으킨 변화를 우리는 한세대 30년에 이룩해 내고, 다른나라에서 200년에 걸쳐 일으킨 경제 근대화를 우리는 불과 40년만에 해냈

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경제발전이나 정치발전은 압축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은 압축이 매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 구조나 사고방식은 경험을 통하지 않고는 행동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온도를 재는 방법인 섭씨와 화씨를 보아도 한국인은 섭씨로 영하 20도나 30도라고 한다면 그 기온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지만 화씨로 20도나 30도라고 하면 그게 더운 날씨인지 추운날씨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것은 섭씨가 한국인의 경험이 실린 잣대라면 화씨는 경험이 실려있지 않은 잣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아무리 고치려해도 자

신의 경험적 배경이 고착되어 있으면 잘 고쳐지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선각자적인 인간의 노력이 결들여지지 않으면 쉽게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땅을 사고 팔아서 하루아침에 떼부자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루 아침에 합리적인 의식 구조와 지성인의 면모를 갖추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짚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경제 수준과 의식구조간에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데 있다. 경제 성장은 일인당 국민 소득이 8천달러까지 신장했는데 반해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은 아직도 3백달러나 5백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고쳐야 할 의식구조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한국인의 재산관이다. 재산은 과연 모아야 하는 것인가. 모아서 어디에 써야 할 것인가. 재산은 대대손손 자손에게 세습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들의 생활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 재산관의 문제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려 한다. 또한 재산은 나의 당대 뿐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어서 내가 모은 재산으로 내 후손들이 대대손손이 편히 먹고 살기를 바란다. 이러한 재산관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재산이 있어야만 잘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렇다. 재산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달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들고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없이 월급만으로 잘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사회와 같은 사회를 재산중심사회라고 한다. 재산중심사회는 재산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떠한가. 선진국들은 어느나라도 재산과 잘 사는 것과는 별관계가 없다. 미국 영국이나 독일에서 잘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연봉이다. 즉 월급이 많아야 잘 산다. 그래서 한국인은 개인들은 부자이지만 가난하게 살고 선진국 사람들은 개인은 재산이 없어도 부유하게 잘 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이 차이이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공직자 재산을 등록할 때 공직자들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되는 사람에 한해 조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라면 재산조사를 받게 되는 공직자 재산액수가 10만달러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다. 10만달러라면 8천만원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둘째로 한국인은 개인 중심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선진국은 사회 중심으로 재산을 축적해 나간다. 그래서 한국은 개인은 부자이고 사회는 빈자인 반면 선진국은 개인은 빈자이며 사회는 부자이다. 그 결과 선진국은 잘 살고 후진국은 못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자식교육과 노후생활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중심적인 재산을 축적한다. 그 대신 사회적 재산축적 즉 교육시설 병원시설 교통시설 공원시설 공해대책과 같은 사회적 투자는 빈곤하고 소홀하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개개인의 저축이 세금이란 형태를 통해서 사회보장 교육시설 교통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교육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개인은 일체 사교육비를 내지 않으며 수업료도 무료이고 과외도 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에서 우유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자녀는 사회에 맡기고 부모는 사회에 세금이란 형태로 돈만 내면 자녀교

생활에서의 경제정의 실현

유재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개혁들은 대체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다. 경제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회 각 집단간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들은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식개혁 캠페인을 진행해야하며 또한 생활속의 지침들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사회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개혁들은 대체로 이 사회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다. 경제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회 각 집단간의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현이라고 하는 구호는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주요한 개혁의 과제들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고위층과 민간전문가나 시민운동단체들의 논쟁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

으며 그로 인해 위로부터의 개혁이 국민전체의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국민 각자 각자가 개인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제도개혁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개혁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지침들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활 속에서의 경제정의실현과 관련된 몇가지 주요 과제들을 검토해 보고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회생을 초래한다.

부동산 투기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적절하게 징수하면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고 투기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투기가 망국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한때는 국민총생산액을 넘어 설 정도로 과도하여 이 나라의 부가 완전히 토지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독점되고 빈부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주택이나 일반 부동산 가격도 따라서 상승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전세금 등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일반서민 세입자들은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상점 및 사무실의 임대료 인상은 곧 물가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지방의 토지가격 상승은 바로 공장 신축시의 과도한 투자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비용은 제품가격에 전가된다. 또한 불로소득이 커질수록 사치와 낭비가 심해지고 부정부패와 뇌물이 성행하는 사회가 된다.

부동산 투기에 의한 이득은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개발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국민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 각자가 장래의 투기이익을 기대하여 업무와 관계없는 토지를 구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돈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을 때 일반 국민들은 그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 또한 한국은행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왜 시민들의 생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 부동산 실명제도 마찬가지다. 돈과 경제의 관계는 피와 신체의 관계와 같다. 화폐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경제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인 이와 같은 제도들이 왜 필요한지가 국민들간에 공감되지 않는다면 생활속의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금융실명제란 자기의 명의로 예금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너무도 간단한 이 제도가 왜 그동안 문제가 되었는가하면 박대통령 당시 예금의 비밀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가명구좌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검은 돈이 있어야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만들어 놓은 이 법은 6공이 끝날 때까지 시행이 되어 왔다. 이 법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이른바 "돈세탁"이 성행하여 불법자금의 유통을 근절할 수가 없었다.

자기 명의로 예금하고 수표를 누가 발행하여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으면 자금의 흐름이 정상화될 수 있다. 결국 가명으로 예금을 하는 사람은 부정을 저지르려는 사람 뿐이다. 국민 각자가 금융실명제의 정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한다면 이 사회의 부정부패는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통화정책을 정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독립된 나라들은 대부분 낮은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통화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올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통화가 계속 팽창하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화폐발행을 늘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어 국민 전체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를 유지시키려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통화를 팽창시킨다.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일단 돈을 더 찍어 내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제도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다는 아주 간단한 제도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 제도의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역시 매우 간단한 것이다. 즉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재산을 은폐하여 세금을 조금내기 위한 것이다.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토지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분산하여 등기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금융제도의 개혁은 국민 각자 각자가 법을 지켜야만 실효성이 있을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이 법을 위반하면 그것은 세금을 착복한 돈으로 개인의 부를 더 축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부유층의 이러한 형태는 결국 일반 서민들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도덕한 일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하려는 의식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돈에 의해 교육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심각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개혁안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17조에 달한다는 사교육비는 학교교육의 참담한 실패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경제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의 하나다.

돈 많은 사람들이 고액의 과외를 하고 서민들이 이에 따라가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사회전체가 부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돈봉투를 돌려 교사들에게 무언가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결국 뇌물과 매수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가진 자가 돈의 힘으로 자녀들의 출세를 보장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의 신분과 지위의 상승에 제약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을 지속시키게 된다. 교육기회의 차등화는 취업기회의 차등화를 가져 오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적 신분의 차등화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경제적 부정의의 문제이다.

교육개혁은 물론 입시제도, 교육내용, 교사처우 문제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역시 학부모들의 의식개혁이 있어야만 한다. 특히 돈봉투와 과외를 근절하는 것은 개개인의 결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교육문제에 관한한 학부모나 일반시민들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금권선거를 배격해야 한다.

민주화투쟁에 의해 우리가 얻어낸 정치개혁은 대의민주정치의 회복이었다. 그러나 2백년전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정치제도와 비교하면 아직도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대의정치는 민주화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민주화는 아직도 멀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단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고 우리가 뽑은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당리당략에 의해 행동을 한다면 더이상 우리의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선거과정을 보면 경제정의가 짓밟히고 있다. 지자체의 장과 의원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10억 대의 공천거래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중앙당의 실력자들과의 연줄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되고 있다. 돈에 의해 후보자가 정해질 때 그들이 재임기간동안 이해관계와 청탁에 좌우되어 국민들의 뜻을 저버릴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정치권력이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 서민들의 보호보다는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이 되기 때문에 타락한 정치에 의한 피해자는 당연히 일반국민들이 된다. 돈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물과 정책에 의해 우리의 대리인을 뽑는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공직자를 선출한 다음에 끊임없이 이들의 활동을 감시해야 하며 비리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보의 공유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혀 동반자로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면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를 소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부정의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지역감정은 기본적으로 지역불균형 발전정책의 결과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특히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대부분의 국가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있어 현격한 사회적 해택의 차이로 인해 수도권으로서 집중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있다.

전반적인 지방의 위축과 아울러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역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특정지역의 산업집중정책은 특정지역의 산업기반의 위축으로 재정적 자립도를 극히 약화시켰고 특정지역의 인재들이 연고에 의해 지도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은 결국 기회의 균등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위는 결국 이 나라를 망치는 행위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은 바로 지역적 차이에 의해 생겨나는 경제적 부정의를 극복하는 길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지역감정이 유발된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일반 국민들도 이러한 편견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은근히 지역차

별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술선수범하여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야 한다.

환경문제해결은 우리의 소비생활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시민 스스로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생겨났다.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무절제한 전력의 사용증가, 자동차 사용증가, 일회용품 사용증가 등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공해배출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자원 재활용 운동, 쓰레기 줄이기운동 등이 사회적인 호응 속에 폭넓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동차 경우도 아무리 공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해방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이용의 증가 그 자체가 과도한 자원의 사용, 즉 철강 유리 플라스틱 등의 중화학 공업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자가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지 않으면 급속한 환경오염을 막을 길이 없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선진국,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부유층들의 과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후진국과 저소득층의 문제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의제 21의 초안에서 이러한 선진국의 생활양식에 대한 제한 조치가 제안되었으나 미국등 선진국의 반대로 최종합의문서에서 삭제되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양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여 국제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소비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문제의 본질은 단지 공업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공해물질의 축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자원하에서 후세대까지 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가라는 절대적명의 위기감에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속도를 늦추고 생활의 편익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소비자채를 축소하려는 대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환경운동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자원의 사용과 공해의 피해가 민족별, 계층별, 연령별, 성별로 차등적으로 나타나 남북간의 문제, 계층간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이 선진국과 부유층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인 시민 스스로가 또는 법규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소비절약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룩하지 않는다면 모든 환경운동은 겉치레에 불과한 의미없는 운동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는 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계획이 본격화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기업이라는 인식하에공단부근의 주민들의 항의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단위 운동은

지역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격렬한 시위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공해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공해추방 운동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또한 대도시에서는 교통혼잡,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대도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 거대한 댐의 생태계 파괴문제를 제기하는 운동, 골프장의 과도한 건설에 반대하는 운동, 각종 강살리기 운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지역운동들은 얼마전 안면도 핵폐기물 반대운동에 이르기까지 주로 지역단위의 피해 자구책 및 피해의 사전 예방 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은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는 반격을 받고 있다. 이른바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 즉 우리가 사는 곳에는 안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공장이든, 쓰레기장이든, 발전소 이든지 간에 아무곳에도 새로 설치할 수 없게 되고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여러 지역운동들은 지역단위의 피해 자구책 및 사전 예방 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역 이기주의라는 반격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이를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있는데 그것은 곧바로 경제활동 자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지역 단위 운동이 이와 같이 독자적으로만 전개될 때는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시민운동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개별적인 행동으로 고립되어 해결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도 적지를 찾기가 힘들고 매립장 반대운동으로 인해 지역 지정도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운동이 결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운동은 시민운동과 결합할 때만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것이 왜 경제정의 문제인가를 이해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쓰레기는 모든 국민들이 소비생활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것을 한군데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특정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이를 지원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해당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결국 모든 쓰레기를 각자 각자가 자기 집안에서 처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이 함께 살기위해 북한동포를 도와야 한다.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림 속에 고통받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을 때 혹은 지진, 홍수 등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선금품을 모아 보내곤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한 핏줄, 한 백성인 이북의 동포들이 인간 이하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분단 50년이 되었다. 이북의 동포들과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 나라 사람 그리고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휴전선 하나만 넘으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북한이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친척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얼마전 한국선명회에서 북한당국자와의 합의하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30만톤의 쌀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때 정부는 즉각 "군량미"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으니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계획에 반대했다. 북한이 김일성부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주체왕국이고 남북한의 통일이 언제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그곳에 사는 우리동포들이야 무슨 죄가 있는가?

김일성이 사망하기 얼마전에 "인민들이 기와집에서 비단옷입고 이팝과 소고기국을 싹껏 먹게 해야 한다"고 우리로 볼 때는 먼 옛날이야기 같은 말을 했던 것을 보더라도 북한이 식량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는 나라임은 이제 분명해졌다. 북한지역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연변동포들이나 재일교포 상공인들 그리고 북한에서 망명해 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사정이 하루 두끼도 충분히 먹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고 모든 대화와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 선교의 길도 역시 막혀 있는 이 때 우리들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 우선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적인 장벽은 쉽게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지금과 같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막상 통일이 되면 남북한 모두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통일문제는 바로 우리동포들 사이의 경제적 부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북한동포를 돕고 그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정의실현을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빠른 속도로 지방정부에 위임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 시민들은 무력하기만 했다. 국가에서 주도하는 각종 정책들이 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도 묵묵히 당하기만 했다.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 상업주의의 만연으로 정신문화가 점점 저속해지고 있어도 그속에서 헤어나려는 노력조차 못하고 살아왔다. 그리고 반인륜적 범죄와 공무원사회의 구조적 비리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도 무기력하게 한숨만 쉬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는 그동안 상징적으로 왕자(국가권력)와 상인(기업)이 지배하는 사회로 인식되어 왔고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인 시민(보통사람들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의 존재는 단지 지배를 당하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했었다.

사회를 구성하는 3대 요소인 왕자와 상인과 시민의 역학관계가 왕자와 상인의 압도적인 주도하에

있을 때 그 사회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사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시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야만 한다. 왕자와 상인 그리고 시민이 권력을 삼분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각구도가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물결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의 제시다.

시민단체가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위해 의미있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히 비판만 하는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사회적인 공신력이 생기고 실제로 사회를 개혁하는 힘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이들로 하여금 각분야별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고 시민운동가들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제시된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사회제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여야정당의 입장이나 기업체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입장에 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 각 부문별로 갈등이 있을 경우에도 어느 한편의 입장에 서서 지지를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셋째, 언론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론을 선도해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시민단체의 역할은 여론선도기능이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의 의사결정은 관조직을 통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여론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그 내용을 정부관리들과 거의 동시에 알게 된다.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제기된 대안들은 사실상 정부의 대안제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오기 마련이다.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보도가 날 경우 시민단체들은 보도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작업을 해야 한다. 만약 언론의 입장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운동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넷째, 국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제 시민운동은 국제화되어야 하며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지구정상회담)에서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지구의 운명을 논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협약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전과정에서 세계 시민단체들의 영향력과 실질적인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국제화시대의 주된 흐름은 시민의 참여와 민간의 역할 강화에 있다.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와 Global Forum(세계민간단체환경회의)을 비롯하여 WSSD(사회개발정상회담), WCW(세계여성대회), HABITAT II(세계도시정상회담) 등의 국제적인 회의에서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세계적인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관계가 별로 없으며 특히 국제협력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정의의 실현은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독재정부하에서 정부와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도 못했고 해결이 안되어도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도 없었다.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로 개선되기 시작했으나 이제는 그동안의 타성에 젖어 있던 시민단체들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시대적인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강화된 지금 시민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이제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아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주도해왔던 시대를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3자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이제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 진정한 민주화는 바로 시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은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야만 한다.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안의 제시와 사회제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 역할, 언론을 최대한 활용하여 여론을 선도하는 것과 국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향후 여성단체 사업방향

21세기를 바라보며 여성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힘의 증진과 더불어 서로의 힘을 뭉치는 화합된 모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따르는 한계점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힘을 모으는데 더욱 분발하여 6월에 있을 선거와 8월말에 열릴 북경대회, 그리고 10월에 있을 전국여성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한다.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 둘째날에는 전날에 있었던 '세계화 시대와 여성의 의식개혁'과 '생활에서의 경제정의 실현'의 두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두 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앞으로 10월에 열릴 전국여성대회의 주제에 반영될 예정이다.

다음은 종합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발제한 것이며 덧붙여 토론참석자 명단을 실는다.

▲ "세계화와 여성의 의식개혁"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먼저 우리나라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표출해 내고 세계화에 임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여성들이 여성의 입장에서 세계화나 의식개혁을 이루어보려는 의도는 좋은데 이것을 국내, 국제적으로 어떠한 행동강령으로 표출할 수 있을 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

▲ 우리가 이루려는 의식화나 세계화는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식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21세기를 바라보며 여성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힘의 증진과 더불어 서로의 힘을 뭉치는 화합된 모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책 결

정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올 6월에 실시될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모든 여성들이 힘을 모아 여성들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많은 여성들이 정책 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들의 연대작업이 성공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의 정치활동을 지지하게 하는 홍보활동이나 제반연건 등을 갖추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 여성의 사회진출과 세력화를 내실있게 갖추기 위해 "여성세력화의 방향"의 주제를 이번 전국여성대회의 주제로 삼았으면 한다.

▲ 여성의 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의 연대체계가 원활히 맺어져서 중앙조직은 지방과 연계된 교육을 준비하고 연대책을 강화시켜 나가며 또한 지방조직에서는 그 나름대로 연대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그 내용을 각 지방 단체장들에게 전달하는 책임감을 가질 때 여성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질 수 있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성의 의식화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올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열리게 될 NGO 북경대회가 여성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또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아 이를 계기로 여성운동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 여성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상속세등 세제개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가계를 꾸려 나가는 여성들의 절제된 생활이 더욱 필요하다.

▲ 사회사업이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복지사회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따르는 한계점과 어

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힘을 모으는데 더욱 분발하여 6월에 있을 선거와 8월말에 열릴 북경대회, 그리고 10월에 있을 전국여성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참석자 명단-

이연숙	한국여협 회장
박영혜	한국여협 부회장, 전문직여성클럽(BPW) 한국연맹 회장
정연심	한국여협 부회장
이옥기	한국여협 부회장, 대한조선협회 회장
최희순	한국여협 서기이사
강인자	한국여협 서기이사
김옥환	한국여협 감사
이영자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이사
이명자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이사
김도숙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이용옥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최금옥	국제존타서울클럽 이사
이순화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이사
이정인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이사
조미사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이사
노경자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총무
서란희	대한조선협회 이사
윤귀남	대한조선협회 이사
윤용숙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이교회	여성문제연구회 이사
윤정희	여성문제연구회 이사
김취복	중앙부인회 회장
한정자	중앙부인회 상임이사
김금숙	가톨릭여성연합회 부회장
김신실	가톨릭여성연합회 부회장
이근자	가톨릭여성연합회 총무
심정섭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이사
안목단	한국부녀복지연합회 회장
이예자	우리웃협회 회장
이은자	우리웃협회 이사
유인자	우리웃협회 감사
박충자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부회장
임정자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이사

정정자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이사
서은경 대한영양사회 회장
김경주 대한영양사회 이사
문수자 국제여성승공연합 회장
김숙자 국제여성승공연합 부회장
이희옥 국제여성승공연합 총무
김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배옥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고기효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회장
정영숙 한국화역여군회 회장
최부옥 한국화역여군회 부회장
이정자 한국화역여군회 총무이사
윤수자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회장
오경자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조계영 서울시여협 총무
김용자 부산시여협 총무
정현숙 부산시여협 간사
김옥희 인천시여협 회장
장수영 인천시여협 회계이사
박갑숙 인천시여협 사무국장
박정순 광주시여협 회장
조 형 광주시여협 부회장
송부현 경기도여협 감사
김해광 전국주부교실 강원도지부장
장선애 대전시여협 회장
장은경 대전시여협 간사
오옥환 대전시여협 회원
김난자 충북여협 부회장
이영주 충북여협 사무국장
정영애 전북여협 회장
김언자 전북여협 부회장
서선녀 전북여협 사무국장
조정심 전남여협 감사
김혜순 경북여협 회장
박명혜 경북여협 총무
이인숙 경남여협 회장
이수련 경남주부교실 부지부장
김경자 경남주부교실 교육부장
정문자 경남여협
김순령 경남여협
김언자 경주시여협

정금지 경주시여협
박청자 대한미용사협회 제주지부장
김은희 한국부인회 제주지부장
윤위분 경주시여협 회장
권희자 경주시여협 직전회장
조선훈 조산협회 경주지회장
조동민 한국여협 재정위원
장진순 한국여협 조직관리위원
배동순 한국여협 출판공보위원
이필원 한국여협 근로여성위원
강정숙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최영옥 서울시청 여성단체담당
김금래 한국여협 사무총장
오혜란 한국여협 기획연구부장
김용화 한국여협 조직, 국제부장
권수현 한국여협 특별사업부장
양복숙 한국여협 회계부장
오순옥 한국여협 근로상담간사
이선명 한국여협 출판공보간사
이화영 한국여협 사무직원

▶ 마스크에 비친 여성



삼각관계로 얼룩진 주간 드라마



삼각관계가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시청률 쟁취를 위한 방송사간의 치열해진 경쟁때문이며 이런 와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형제, 자매간의 삼각관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타인들 사이의 삼각관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제작진들이 벌이는 인륜을 무시하는 무모한 모험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마스크 모니터회는 3월22일 모임을 갖고 각 방송사의 미니 시리즈 및 주간 드라마인 MBC '호텔', KBS '갈채', SBS '고백', '사랑은 블루', '다시 만날 때까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론했었다. 기간은 3월8일부터 3월21일까지였으며 각 드라마에 대한 개별적, 종합적 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앞서 제시한 드라마들은 안방극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모래시계' 이후 이 시간대의 시청률 쟁취를 위한 방송사간의

치열해진 경쟁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반복되어 왔던 '삼각관계', '왜곡된 인간상' 등이 다시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떠오르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주제의식의 실종

MBC '호텔'은 얼마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사랑을 그대 품안에'의 속편으로 불려도 좋을만큼 출연진과 내용이 비슷해서 그 드라마의 후광을 너무 의식하고만 들어지는 것 같다. 호텔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의 암투도 사업적

이권보다는 한 여자를 둘러싼 감정적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어서 시청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며 눈요기 거리만을 제공하는 '트렌디드 드라마'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호텔'이란 공간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 '호텔'에 바라는 시청자들의 바램은 호텔 소유주들간의 사랑 싸움보다는 호텔의 기능적인 면이라던가 호텔을 드나드는 사람들, 혹은 타 호텔들과의 사업적 경쟁,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일양국의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여성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양국간의 평화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동북아의 안전과 번영 및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본협회의 목적이다.



한일여성친선협회는 1974년부터 한일의원연맹 간사로 활동하던 박정자의원이 일본의원들과의 공식교류를 해오면서 당시 일본내 지식층에서의 비판세력 및 언론등을 통해 팽배해 있던 편향적인 한국관을 분식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의 올바른 인식과 정치, 경제를 초월하여 진정한 상호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순수 민간 여성들의 교류를 시도하였다.

당시 일한친선협회 중앙회 부회

장으로 활동중이던 소마유끼씨가사와 협의, 2차의 상호예비교류를 거쳐 1978년 5월에 일본 동경에서 한일 합동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일양국의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여성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양국간의 평화증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동북아의 안전과 번영 및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본협회의 목적이다.

현재 한일여성친선협회의 조직체계는 박정자 회장과 24명의 이사, 2명의 감사, 그리고 39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한여성친선협회에는 소마유끼가회장과 26명의 이사, 2명의 감사, 2명의 고문, 41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의 국제적 이해와 평화를 위한 교류사업의에 제일 교포의 권익 옹호 및 정보 교환 사업,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환경문제, 사회복지문제, 여성문제 등 여성들의 공동관심사의 전문 분야별 연구와 교류를 위한 사업과 「한일여성」 계간지 발행 사업, 차세대를 위한 청년교류 및 아동작품 교류사업 및 기타 본 협회의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동총회 및 연수회 개최

양협회는 매년 1회씩 상호 방문하여 강연회, 분야별 간담회, 관계기관 예방, 판문점 및 문화 유적지 견학, 양국합동 이사회, 여성 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등 서로의 의견 교환 및 문화 소개를 통한 상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한일간의 참예한 현안 문제나 과거사에 대해 양국여성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재한 일본여성과의 교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여성들과 1980년 2월부터 격월로 교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소개 및 운동회, 좌담회, 영화감상, 시설견학과 한국가정 방문등을 통해 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 한일양국 아동작품 전시회

1979년 "세계아동의 해"를 기념하여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양국 공동사업으로 양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 글짓기 등의 작품

을 전시,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슬기를 키워주는 동시에 양국의 사회, 문화를 비교·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우호 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 한일 양국 청년교류

양국의 여성들이 중점사업으로 육성중인 청년교류 사업은 미래를 짚어본 청년들이 봄과 여름 한해에 두번 상호 방문하여 6박7일의 일정으로 분과토의, 양국 문화소개, 세미나, 현장조사, 견학, 민박 및 합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교류를 갖는다.

청년들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일관계의 주역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갖도록 하고 있다.

94년 9월4일 일본동경에서 그동안 교류에 참가했던 졸업 학생들의 OB, OG회가 구성되는데 이어 94년 10월15일 서울에서도 1회부터 14회까지의 졸업 학생들이 모임을 갖고 OB회를 조직한 바 있

으며 연 1회 정도 합동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외교관, 연구원, 대기업 중견사원, 언론계, 교사 등 각계에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들이(OB·OG) 양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게 될 때 이들 젊은이들이 다져 놓은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의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 분야별 교류

일본의 각 지역에서 수시로 내한하는 전문직여성 및 여성단체 등과 여성의 사회참여나 역할에 대한 정보교류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강연회, 친선교류회, 좌담회 등을 개최, 양국의 친선교류 뿐만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이의 성과로 아오모리현과 후쿠오카현에 지회가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여성들의 활동이 높이 평가되어 1984년 5월 일본측 소마유끼가 회장이 한국정부로부터 수교훈장 승려장을, 1987년에는 본회 박정자 회장이 일본 정부로부터 훈3등 보관장을 서훈한 바 있다.





▶ 해외여성통신

몽골의회, 여성의 날을 어린이 날과 통합

이영님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몽골 의회는 올해부터 공휴일인 여성의 날을 '어린이 날'인 6월1일로 통합하는 것에 대부분 남성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이에 적극 호응, 현행 노동법을 개정해 여성의 날과 어린이 날을 같은 날로 합쳐 버렸다. 이에 지난 69년부터 매년 3월8일이면 직장을 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휴식을 즐기던 많은 여성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 몽골, 여성의 날 폐지

몽골 의회는 올해부터 공휴일인 여성의 날을 '어린이 날'인 6월1일로 통합하는 바람에 지난 69년부터 매년 3월8일이면 직장을 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휴식을 즐기던 많은 여성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존살마긴 오치르바트 대통령은 연초 의회연설에서 "여성들이 여성의 날을 이용해 대부분 술을 마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개탄하면서 공휴일 수를 줄여 술마실 기회도 줄일 것을 촉구했으며 대부분 남성의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이에 적극 호응, 현행 노동법을 개정해 여성의 날과 어린이 날을 같은 날로 합쳐 버렸다.

이에 대해 3명의 여성의원 중 한 사람인

간디 의원은 "여성의 역할이 어찌 어머니 뿐이겠는가. 우리는 평등을 요구하는 상징으로 이 날을 지켜나가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소수 중의 소수로 전락했다"며 분개했다.

그는 "이 나라에서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스스로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평등한 지위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오치르바트 대통령은 여성의 날 통합합 문제에 관해 여성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날 화가 난 얼굴로 출근하던 한 중년여성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는 건 차별행위"라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같이 놀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날과 어린이

날의 가치를 모두 절반씩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몽골은 겨울철에만도 12월과 1월에 걸쳐 2주간의 연말연시 휴가가 있고 2월중 스승의 날, 2월말에 또다시 2주의 규정 휴가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술에서 채 깨지도 않은 채 직장예 출근하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몽골 여성들은 경찰에 단속되는 취객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술을 이유로 여성의 날을 박탈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몽골 경찰은 특정 단속지역에서 만 7만명의 만취객들을 붙잡아 술이 깰때 까지 유치장에 가둬놓았는데 이는 지난 93년에 비하면 75%나 늘어난 것이며 이중 절대다수는 남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월중 입건된 범죄중 5분의 1은 술로 인한 것이며 대부분 남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휴일을 즐기던 습관에 젖어있던 많은 남성들은 3월8일 여성의 날을 술로 축하했다.

■ 알제리 여성들,

회교과격과 재판위한 '법원' 설립

알제리 여성들은 여성의 날을 맞아 회교의 이름으로 수천명의 여성들을 과부로 만들고 1백명 이상의 여성을 살해했으며 수많은 여성들을 납치하고 강간한 과격파 지도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상징적인 법원을 설립했다.

알제리의 한 여성단체는 총리 관저 부근의 이른 칼둔 극장에 이같은 법원을 설치하고 불법단체인 이슬람구원전선(FIS) 지도자들에 대한 결식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을 일부는 이미 정식재판에서 징역형

을 선고받았으나 정부의 유화정책으로 교도소 대신 가택연금 정도로 너그러운 대접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해외에 망명중이다.

재판정에 모인 여성들은 이들의 만행에 대한 증언을 들었는데 한 피살자 유족단체에 따르면 이들의 공격으로 1만명이 과부가 되고 14만명이 고아가 됐다는 것이다.

주요 여성단체중 하나인 알제리 여성민주주의자집회는 이 '재판'이 "인간에 대한 범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신변보호를 위해 '재판관'의 신원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 스웨덴, 의사당에 의원전용

탁아소 설치

이미 여성의원이 전체의 44%를 차지, 세계 최고율을 자랑하고 있는 스웨덴 의회는 의사당 안에 의원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를 설치, 여성들의 더욱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여성인 비르기타 달 국회의장은 35만크로니(약3천8백만원)을 들여 남녀 의원들이 어린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탁아소 설치에 앞장섰으며 이 탁아소가 문을 연 첫날 22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다.

정부가 보조하는 이 탁아소는 주 3일 문을 열며 어린이 한 명에 시간당 20크로니(약2천2백원)씩,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엔 할인된 탁아료를 받는다.

달의원은 "내 정치경력에 통틀어 이 일은 가장 훌륭한 과제이다. 이 탁아소를 마련하게 된 것은 부모가 복잡하기 짝이 없는 의회업무에 시달려도 자녀들은 이 때문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세계여성대회 NGO회의장 먼 곳으로 옮겨

중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자 중국의 개방을 상징하는 유엔 여성대회를 불과 몇달 앞두고 중국 정부는 이달 초 말썽을 것으로 우려되는 비정부기구(NGO)회의 장소를 본회의가 열리는 북경에서 40km도 더 떨어진 외곽 도시 화이루로 옮기겠다고 밝혀 양쪽 회의 관계자들이 다같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당초 NGO 포럼이 열릴 예정이던 북경 시내 노동자 경기장이 "지난 61년에 지어져 많이 낡았으며 최근 점검 결과 전면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장소 변경 결정을 뉴욕의 NGO 포럼 조직본부에 팩시밀리로 통보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문가들과 관계부처들은 공인경기장이 대규모 국제회의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회의 조직당국은 중국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공식회의의 주요 개최당사자인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의 북경 주재 관계자는 "우리는 NGO 회의장이 공식 회의

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되기를 절실히 바란다. NGO 포럼에서 나온 전문적 의견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모두가 함께 일하는 목적은 영향력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NGO 포럼에서 논의될 문제들이 중국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듯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1만5천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NGO 포럼 참가자 중 수천명은 공식회의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중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들고 나와 중국 당국을 당혹케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열리는 이 회의를 앞두고 중국정부와 로마교황청은 티베트 여성의 권리문제를 들고 나올 여성 단체들과 낙태를 용인하는 가톨릭 단체들의 참가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중국이 대만과 티베트 단체를 비롯, 일부 단체들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중국정부가 참가자 선정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

중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자 중국의 개방을 상징하는 유엔 여성대회를 불과 몇달 앞두고 중국 정부는 이달 초 말썽을 것으로 우려되는 비정부기구(NGO)회의 장소를 본회의가 열리는 북경에서 40km도 더 떨어진 외곽도시 화이루로 옮기겠다고 밝혀 양쪽 회의 관계자들이 다같이 우려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한편 바티칸의 낙태허용단체 참가 금지령에 반발하는 단체들의 요구로 구성된 유엔의 관계위원회는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멕시코, 우루과이 및 브라질의 진보적인 가톨릭 단체들의 참가를 허용했다.

■ 망명 이란 여가수 16년만에 공연

이란 회교 혁명 이전에 인기 정상의 가수였으나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노래부르는 것은 회교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후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마르지에(71)가 3월말 런던의 로열 알버트 홀에서 가진 16년만의 공연에서 이란 여성들의 고통을 그린 노래를 불렀다.

지난 해 프랑스로 망명한 마르지에에는 당초 파리에서 첫 공연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공연을 금지하자 런던으로 장소를 변경해 뜻을 이루었다.

지난 42년부터 79년사이에 페르시아 음악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마르지에 대규모 페르시아 오케스트라의 협연한 이 음악회를 위해 새로운 노래들을 지었으며 하루 12시간씩 연습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는 망명 이전에도 폭포 옆에서, 또는 별 아래서 몰래 노래를 불렀으며 그럴때면 마을 사람들이 경청하다가 외부사람의 기척이 있으면 자신에게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여성들이 겪는 고난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친구 한 사람은 입술연지를 발랐다는 이유로 임신중에 총에 맞아 죽었다고 전했다. 화장을 하거나 머리카락이 차도르 밑으로 보이는 여성들은 보통 채찍질을 당하며 이같은 일이 세번 적발되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이다. 또 사형선고를 받은 여성이 미혼일 때는 '처녀는 처형하지 못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먼저 강간한 뒤 처형한다고 말했다.

마르지에에는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94년까지 조국을 떠나지 않고 살았으나 상황이 점점 악화될 뿐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파리로 망명해 그곳에서 반정부 세력에 합류했다고 밝히고 "나는 살해당할 지도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한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 호주 동등임금 실현에

앞으로 1백 68년

호주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 3분의2에 불과한 임금을 받으며 25년전 상당히 진전됐던 진보가 90년대 들어 거북이 걸음으로 도로 느려졌다고 호주 성차별위원회가 밝혔다.

호주노조연맹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69년 전업 여성들의 평균임금은 남자의 58%였다가 73년에는 70%로 향상됐으나 지난 90년부터 94년 사이에는 단 0.6%가 증가해 79.8%에 그치고 있다는 것.

또 전업 여성중 주당 1천 호주달러(약60만원)의 임금을 받는 비율은 2.2%에 불과해 남자의 12.1%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8백 호주달러를 받는 비율은 7%로 남자의 26%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

성차별 위원회의 필리마 홀 신임고문은 "지난 20년간 호주 여성들의 지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도 간격을 메우려면 요원하다. 남자가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1백68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과제

김선옥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여성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권리가 고려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구조를 양성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전반적인 여성지위향상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문제 해결의 효과적 수단이 되며,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I. 여성의 정치참여의 의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지방의회의원을 선거한지 4년이 지나고, 이제 6월27일이면 지방의회의원을 다시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접 주민들이 선출하게 된다. 이날 우리는 15명의 시장, 도지사, 23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광역의회의원 972명(이중 97명은 비례대표)과 4,545명의 기초의회의원등 5,768명의

지역일꾼을 뽑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경쟁률을 광역단체장의 경우 8대 1, 기초단체장의 경우 5대 1,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4대 1로 예상하고 있으며, 입후보자는 모두 2만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의 총 예산은 국비 41억원과 지방비 1,951억원을 포함하여 1,992억원이며, 선거관리지원등을 위해 동원

되는 인력은 1백4만명 규모라고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고, 각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 발전되면 생활속의 정치인 지방정치에 여성

들의 참여의 기회는 더욱 증진되고 여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조직적 참여와 활동을 통하여 여성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세력이 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사회에서 형성되게 된다.

지난 1991년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0.9%의 여성참여를 경험한 여성계는 그동안 1995년 선거에서 보다 많은 여성의 지방정치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니만큼 그동안 지역사회활동을 많이 해온 여성들이 잘 할 수 있고 해야한다는 인식도 커졌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문제를 정책의제화하기 시작한 여성단체들이 지역적, 국제적 연대활동과 함께 일반 여성대중의 의식개선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역할을 증대해 왔고, 여성후보의 발굴과 지원계획등 여성의 정치참여 지원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권리가 고려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구조를 양성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전반적인 여성지위향상의 조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어떤

다른 분야의 참여보다 여성문제 해결의 효과적 수단이 되며,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는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도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현황을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현재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의 제거 내지 극복을 위한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II.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1.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인 투표율을 보면 1992년 국회의원 선거 시 남자 72.2%, 여자 70.9%, 대통령 선거시 남자 82.6%, 여자 80.9%로 여자가 약간 낮았다. 그러나 1991년 기초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남자 53.1%, 여자 54.2%, 광역의회 선거는 남자 58.5%, 여자 59.0%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되어 여성의 관심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1992년 14대 총선의 총후보자 1,206명중 여성후보자는 3%에도 미치지 못하는 35명이었고 그 가운데 지역구 후보자는 19명(총 1,052명중 1.8%)이었으나 이들 모두 낙선하고 단지 전국구에서 당

선된 4명만이 의원직을 가지고 있어 총 국회의원 299명중 1.3%에 불과했다. 그후 전국구로 1명의 여성이 추가되고 보궐선거로 지역구에서 여성의원이 1명 당선되어 1995년 현재 여성의원수는 6명으로 2%이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992년 현재 기초의회의 여성의원수는 4,304명중 40명, 광역의회의원 역시 총 866명중 7명으로 각각 1%에 미달하고 있다.

3. 정당에서의 여성참여

정당의 경우 1992년 민자당은 당원의 56.3%, 민주당은 54.0%가 여성당원이나 형식적으로 등록된 당원이 많은 한국정당의 실정에서 이들의 실질적 역할은 매우 약하다. 또한 정당정책의 결정과 진행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직자의 경우 고위직일수록 여성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주요 당직자별 여성현황을 보면 민자당의 경우 1994년 9월 현재 당 고문 13명 중 여성은 1명(7.7%)이며, 당무위원 44명 중 2명(4.5%)이, 중앙상무위원 10,633명 중 791명이 여성(7.4%)이다. 국책자문위원 340명 중 여성은 12명(3.5%)이며 지구당 위원장 237명중 여성은 2명(0.8%) 뿐이다. 사무처 요원으로 국장은 14명중 1명(7.1%)이 여성이며, 부국장은 36명중 2명(5.6%), 부장은 57명 중 3명(5.3%)이 여성이다.

민주당의 경우도 최고위원 8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고 당무위원 51명 중 3명(5.9%), 지구당 위원장은 237명 중 1명(0.4%) 뿐이다. 사무처 요원으로 실국장 25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고 부국장 30명 중 3명(10%), 부장 75명 중 13명(17.3%)이 여성이며 전문위원 22명 중에는 여성이 1명으로 4.5%에 불과하다. 이같이 정당의 주요 정책결정직에 여성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4. 정부에서의 여성참여

1995년 현재 각료 22명 중 여성장관은 정무장관(제2), 교육부장관 2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차관은 정무장관(제2) 보좌관 1명에 불과하다.

1993년 여성공무원은 총 884,033명 중 234,907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크게 떨어져 3급 이상은 1,106명 중 12명(1.0%), 4~5급은 24,599명 중 413명(1.6%)에 불과하며 여성공무원의 71.5%가 주로 8~9급의 하위직에 몰려있다. 또한 직렬로는 특정직중 교육직에 45.9%가 여성이며, 고용직의 82.5%가 여성이다.

특정직공무원인 판사의 경우 1995년 현재 1,262명의 판사 중 여성은 66명으로 5.2%에 불과하다. 한편 985명의 검사 중 여성은 10명으로 1.0%이다.

하급직공무원인 9급 행정직, 공안직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은 남녀구분 모집철폐 이후 1989년 24.9%, 1990년에는 30.2%, 1992년 40.1%로 매년 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평균 60%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고급공무원을 채용하는 국가고시의 경우 '94년도 행정고시에 합격한 여성의 비율은 6.0%(250명 중 15명), 사법고시 여성합격자 비율은 10%(30명), 외무고시는 10%(3명)으로 고급행정직에의 여성참여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하나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내 각종위원회에서의 여성참여비율은 1993년 6.1%로 1984년 2.2%, 1988년 5.5%에 비해 늘어나긴 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실정인데 정부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을 2000년까지 15%를 목표로 정해 여성참여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III. 여성의 정치참여 장애요인

1948년 제헌 헌법에서부터 남녀동등한 참정권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상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미진하다. 이러한 정치영역의 남성지배현상은 권력에 대한 성별특정 분배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여성은 과반수이상의 인구를 차지하는 사회구성원의 다수이지만 정치 분야에서 무권력의 다수일 뿐이다. 여성정치참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 저조한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이지만 한국

의 경우 그 정도가 극히 심하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발전수준과 전체취업인구의 40%를 넘는 여성의 경제참여,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하면 더욱 불균등한 수준이다.

헌법상의 참정권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공적생활에서의 남녀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성의 정치참여가 부진한 원인은 여성 개인의 책임이기보다 지금까지의 사회, 문화적 편견이 정치권 남성의 영역으로 보아왔고 이에 근거한 정치제도가 여성들에게 정치에의 관심 및 정치적 훈련의 기회를 적게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불평등적인 사회, 문화적 인식과 이로 인한 제도적, 구조적 차별이 주요 장애요인이다.

1. 성불평등적인 사회, 문화적 요인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온 보수적 사회문화로 인하여 여성들은 정치사회화의 기회가 적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 스스로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어서 국회 및 지방의회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입후보의 의지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도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공천권자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당선가능성의 불충분으로 당의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

공천과정을 통과한 여성의 경우에도 여성, 남성유권자의 의식이

아직도 남성후보를 선호하므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2. 구조적 요인

지금까지 한국의 비민주적 정치제도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그룹인 여성집단이 그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다. 여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으로만 평등한 정치관련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사실상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불평등한 법, 제도인 것이다.

또한 정치에 접근할 기회가 비교적 많은 법조인, 언론인, 교수 등의 전문직 내지 고위 공직에 여성이 적은 것은 다시 여성의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IV. 장애요인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양성평등적 가치관과 문화의 형성

성불평등적인 사회, 문화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적 가치관과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양성평등한 교과과정의 학교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매스컴의 내용이 양성평등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2. 민주적 선거제도의 확립

사회 각 구성집단의 대표성과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인 선거제도 일때 정치적 소외집단인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능하다. 어떤 투표구조와 선거구 규모, 비례정도 등이 민주적이며,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의 가능성을 크게 하는가가 논점이 된다. 선거구 규모는 소선거구제 보다는 중, 대선선거구가 유리하며,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취하면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탁금의 하향조정, 선거운동주체의 확대, 선거방법의 포괄적 제한규정의 개정, 선거자금관련법의 개정, 선거운동비용의 국고부담 확대 등 돈 안드는 민주적인 공명선거제도가 보장되면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정당제도로의 개선도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번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10%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민주당은 이의 80% 의석을, 민주당은 50%의 의석을 여성에게 줄 계획이라는 발표는 매우 고무적이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실시

현재의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을 여성의 평등한 대표성을 실현하는 평등참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는 기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치영역에서의 사실상의 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성정책은 종전의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를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정책 외에 지위와 사회적 권력의 분배를 다루는 성평등정책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 등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개발, 실시해야 한다.

1) 목표율설정 및 단계적 할당제의 도입

한국도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의 의식과 공공의 의식이 증가하였고 정치집단들도 여성유권자의 지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근거한 사실상의 평등실현의무 이행을 위하여 정치 및 의사결정에서의 평등한 대표성을 갖기 위한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인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는 국무위원, 장·차관급 등의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임명, 정부 각종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대하여, 정당은 의원후보추천, 비례대표추천, 고위직 임명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무직고위공무원과 부단체장 등의 임명직 공무원에 대하여 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여성의 정치지도력 발전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여성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려

면 우선 정치에 참여할 의지를 갖고,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인정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능력있는 여성들이 정치를 자신의 활동영역으로 선택하고 입후보 등의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하는데는 많은 의식교육이 필요하고 정당의 공천절차, 유권자의 지지 등에는 전략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여성의 정치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개발되고 이의 실시를 위한 여성정치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각 정당은 특히 여성당원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V. 여성의 정치력향상을 위한 여성의 과제

1. 사회압력단체로서의 여성단체의 역할의 강화

여성단체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자율적 사회압력단체로서 역할하여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기능을 하면서 정책형성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정치력을 형성하여 각 정당이 여성의 표를 의식하여 정당차원의 여성참여를 본격화하도록 해야 한다. 80년대 후반부터 관련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조직력이 약하고 연대성이 약하므로 같은 목표를 갖는 단체들간의 지역적, 국제적 연대를 더욱 깊이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증진을

위한 공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민주적이고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때만이 1인 1표의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며, 유권자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각 정당과 각 후보자에게 생길 것이므로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조직적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2. 선거운동자원봉사자로서의 여성의 참여

우리나라의 자원활동은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낮고 참여계층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원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자원활동자 중에 여성의 역할은 비교적 크다.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정신을 함양하게 되는 자원활동을 통하여 여성들은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많은 사회문제의 이론과 실재를 경험하면서 해결의 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을 실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하고, 함께 활동하는 사람,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여성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면서 여성 스스로도 자신의 경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특히 이번 정치개혁법에서 새로 도입한 선거운동자원봉사자로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깨끗

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여성후보자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에 기여하고 또한 정치현장의 경험의 기회로 삼아 여성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단체는 많은 여성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또는 여성후보를 위한 선거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실시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3. 여성스스로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 사고와 행동

앞에서 보았듯이 여성 당원수는 많으나 이 숫자는 별 의미가 없다. 단순히 등록된 회원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당내에서 숫자만큼의 활동이 있고 평등한 참여를 한다면 각 정당이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정치는 비진실적인 것도 비도덕적인 것도 아니며, 단지 사회형성의 제도적 전제로서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우리 여성들 스스로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기능을 알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하여

최근 전북 지역의 한 여자중학교 무용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지난 93년 9월부터 8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사건발생이 교육현장에서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성폭행과 성희롱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고조된 관심과 더불어 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조사한 학내 성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성폭력 예방 대책을 실행하고자 한다.

서울대에서는 조교 성희롱사건 대책위원회와 여성문제연구동아리 협의회가 공동으로 학내 성폭력의 심각도를 조사하였다. 학내 성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게 된 배경은 학내 성폭력의 문제가 무척 심각하다는 데에 있다. 대학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지만 학내의 성폭력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이러한 성폭력의 가해자의 처벌이나 피해자의 구제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잘못된 성문화해결의 출발점은 바로 학원에 서부터라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 20여년간의 상업문화의 영향과 가부장적인 사회의 습관들이 하루 아침에 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원이라는 공간은 사회인으로 출발하기위한 예비단계이며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원에서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의 유형은 대체로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교수와 학생, 혹은 교직원과 학생사이의 성폭력이다. 얼마전 교수가 제자를 술자리나 노래방, 연구실에서 희롱한 사건이 있었고 강사가 학생을 여관으로 유인해 희롱한 사건이 사례로 올라와 있다.

대학사회에서 교수는 막강한 권력과 고유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고 학생들의 학점을 관리하며 학생들의 진로문제에 가장 결정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의 막강한 권력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했을때 피해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더 큰 보복이 두려워 졸업만을 기다리거나 그냥 참아 넘기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교수의 영향력이 더욱 강한 예체능계 대학에서 많이 발생한다. 교수의 제자라는 것이 자신의 주요한 경력이 되는 사회에서 교수에게 항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미대의 한 학생은 종강파티에서 노래방을 갔는데 그자리에서 교수가 자신의 엉덩이와 목부분을 자꾸만 쓰다듬어 전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교수가 "연구실에 놀러와라", "너 요즘 나를 피하는것 같다"고 하여 학교에 가기가 겁이 난다고 하였지만 장래문제가 걸려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호소를 했다.

이처럼 학생회나 대책위원회 또는 여러 여성단체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지만 총장이나 학교당국의 소극적이고 관료적인 대응으로 모두 묵살되고 공개시의 불이익때문에 함부로 나서지는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만 줄 뿐이다.

두번째 유형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다. 이 유형은 권력관계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잘못된 성의식에 의하여 일어나는 유형이다. 학생들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첫째, 공공모임에서의 성폭력으로 뒷풀이 자리나 과방, 동아리방 등에서 음담패설, 저절 노래 부르기, 술자리에서 술따르게 하기, 성적 접촉의 강요 등이 해당된다.

둘째,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학교버스, 화장실, 도서관에서의 성적접촉, 음란하고 불쾌한 눈빛, 음란 전화, 팩스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등의 고의적인 성폭력이 해당된다.

셋째, 개인적인 남녀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데이트 강요

나 연인사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 등이 있다.

학내 성폭력의 실태 조사결과 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혹은 성을 암시하는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여학생의 83%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내 성폭력을 인식하는 정도도 "아주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여학생이 10%인 반면 남학생은 0%로 나타났다.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여학생이 55%, 남학생이 49%로 나타났고, "전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학생이 2%, 여학생이 0%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학내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험한 성폭력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불쾌한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놓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0%였으며 "육체, 복장, 신체일부를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부딪치는 일을 하였다"와 "질요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원치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였다"가 각각 21%였고, "불쾌하게 신체일부를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부딪치는 일을 하였다"가 15%로 나타났다. 또한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3%였다. 결국 학내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인 것으로 드러났고 육체,

복장, 사생활에 대한 성적인 언급과 원치 않는 데이트 강요가 빈번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로는 뒷풀이 장소가 전체 성폭력 발생장소의 39%를 차지했고 야유회 장소가 19%, 과방 등이 15%로 주로 공동체적인 장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내 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성의 상품화, 향락, 퇴폐문화가 만연한 잘못된 성문화"(78%)가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여학생을 동등한 학우로 보다는 활력소 정도로 여기기때문에"(43%)가 두번째로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릇된 성 문화와 시각이 성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토대가 됨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학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성문화의 개선과 여학생을 동등한 학우로 여기게 하는 교육 등을 학내에서 폭넓게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연세대에서는 지난해 11월 제 7대 총학생회에서 "이성문제에 대한 연세인의 의식변화"라는 내용의 설문지를 통해 학내 성폭행 실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학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그간의 부족했던 성교육이나 올바른 성의식, 성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설문조사결과 대학생활동안 성폭행을 당할 뻔하거나 당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9%에 달했다. 또한 성폭행을 당한 장소로는 술자리, 야유회장소, 데이트장소 순이었다. 이러한 학내 성폭행에 대해 학생회의 할 일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성의식에 관한 교육, 선전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외부 단체와 연계해 법적 해결이나 학칙상의 징계를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와 학생회의 적절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며 남학생들의 의견이지만 학내 규율대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학내 성폭행 문제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에 대해 무엇보다 제반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교육은 모든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특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가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폭행에 대한 학교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지침서나 예방 포스터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여성학 전공교수의 강의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이성을 완전한 인격체로 볼 수 있게 하는 교육, 성폭력의 원인과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 자기 방어교육, 강력한 처벌과 제재정책을 마련하고 널리 알리는 것 등이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학내시설의 보충이 요구된다. 실내, 복도, 전입로 가

로등을 더욱 밝게하고 갯수도 늘여야 하며 야간에 운영하는 셔틀버스도 늘여야 한다. 또한 학내의 경비를 강화해 나가는 대책도 필요하다.

세번째는 학내 성폭력 신고 상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학생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장되는 "학내 성폭력 구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설적인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성폭력 상담, 대책마련, 피해자 치료보상, 가해자 징계 및 재교육, 성폭력 예방홍보 등의 다각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주는 충격과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성폭력 전문 기관의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학사징계와 아울러 재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우발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학내 성폭행 문제에 대한 예방과 그 대책에 대해 무엇보다 제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내시설을 보충하고 학내 성폭력 신고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성폭력 상담, 대책마련, 피해자 치료보상, 가해자 징계 및 재교육, 성폭력 예방홍보 등의 다각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9차 UN여성지위위원회 '95 NGO 포럼 사전조정회의 참가보고



이제는 무엇인가 이뤄낼것 같은 결의와 자신감에 찬 열정속에서 이질적인 요인들이 합쳐서 이뤄내는 여성으로서의 동질감과 연대감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이연숙 (본회 회장)

1995년 3월13일 오전 9시부터 뉴욕의 국제연합(UN) 본부 건물 정문앞은 세계 180여개국에서 모인 1,400여명의 여성 지도자와 전문가들로 붐볐다.

주최측에서 예상했던 900명을 훨씬 웃도는 대표자들때문에 회의실과 본회의장은 물론 방청석까지 꽂들어찬 열기속에서 식전행사가 신명나게 이뤄지고 이어서 '95 북경여성 NGO포럼 사무총장인 아이린 쉐티아고의 사회로 개회식이 막을 올렸다.

뉴욕 NGO 여성지위위원회를 대표해서 메리 파웰씨가 환영사를 한데 이어 제4차 세계여성대회 사무총장, 젤트루드 몽젤라씨의 "여성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라"는 주제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95 여성 NGO포럼 의장인 스파트라 마스디트씨의 "지역적 집중과제와 지역별 행동강령"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뒤이어 국제 여성 트리뷴 센터가 공동여 만든 "멕시코에서 북경까지"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작품을 관람했다.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고유의상을 자랑스럽게 입은 여성! 여성! 여성! 들. 이제는 무엇인가 이뤄낼것 같은 결의와 자신감에 찬 열정속에서 이질적인 요인들이 합쳐서 이뤄내는 여성으로서의 동질감과 연대감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는 개회식이었다. 몸짓으로 의사가 소통되고 눈빛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체험속에서 여성이 "할수있다"는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잠시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점심을 위해 휴회하는동안 많은 국제여성단체들이 국경을 넘은 회원간의 유대를 새롭게 하고 모두가 한껏 부푼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 안았다.

한국대표들의 만남도 다시한번 큰 즐거움이 되었다. 여협의 수석부회장인 박영혜 한국 BPW연맹 회장, 한국 여성정치문화 연구소장인 김정숙 민자당 부대변인, 여성개발원 국제협력 정순영 책임 연구원, 손봉숙 한국 여성정치 연구소장, 홍연숙 국제 BPW 부회장 등 한국내에서 자주 보던 얼굴들인데도 UN 본부 회의장에서 만난 모습들은 당당하고 미덥게 비춰졌다.

오후 3시에 시작된 본과회의는 정치, 교육, 경제, 빈곤여성을 포함한 제분야의 집중과제등을 3분과로 나누어 설세없이 북경대회에서 다룰 행동강령의 최종개정안을 놓고 240여 조항의 축조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합의하면서 여성이 당면한 과제들을 섭렵해서 다음날 3시까지의 본과에서 내놓은 수정안을 묶어서 전체의견으로 마무리지어 통과시키는 큰일을 해냈다.

중국의 포럼행사 준비위원장의 회의준비 현황설명을 끝으로 다시소집된 전체회의는 폐회식에서 '85 나이로비 NGO포럼 의장이었던 데임 니마 바로우 총리의 특별강연을 정점으로 여성지위위원회의 위원장 파트리샤 B. 리콜란 박사의 인사와 마스디트 의장의 폐회사로 끝맺음을 했다.

비록 짧은 2일간의 일정이었으나 확실한 의안과 전문적인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감없이 NGO 사전조정회의는 잘 마무리 되었고 첫날 저녁에는 뉴욕 여성지위위원회와 NGO포럼 사무국 주최로 중국 명인들이 펼치는 중후한 민속춤을 관람할 기회도 걸드려졌다.

특기할것은 한국대표들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참여와 국제적인 로비활동이었다. 박영혜 한국 BPW회장과 홍연숙 국제 BPW부회장은 BPW 임원으로서는 또 아세아·태평양지역 연대활동을 통해서, 손봉숙박사는 정치연구활동을 통해서, 정순영 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은 여성지위위원회와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서, 또 김정숙 정치문화연구소장은 오랜세월을 통한 UN 국제회의의 참석과 영향력있는 국제인사 한국초청행사를 통해서 확고한 국제교류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실제로 뉴욕을 떠나기 하루전날에는 김정숙소장이 준비사무국 중진들을 우래옥(뉴욕소재 한국식당)으로 청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자매들처럼 끝없는 여성과제와 여성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나눌수 있었고 아세아·태평양지역 국제 모임에는 이사직에 김정숙, 손봉숙씨가 들어있고 박영혜씨는 NGO포럼에 어려운 처지의 자매들을 보내는 기금모금 부위원장으로서 지명받기도 했다.

3월15일은 여성지위위원회가 NGO포럼에 관한 최종준비모임을 갖는 제39차 회의가 열리는 날이어서 우리 참석자 모두는 유엔 회원국이 다 모이는 회의장에 출석했다. 3년임기의 위원국이 중심에 앉고 다른나라 대표들이 그뒤로 둘러앉은 가운데 한국이 45위원국중의 하나로 참석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김장숙 정무2장관이 보건복지부, 정무2장관실, 노동부, 외무부, 여성개발원의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으며 당당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6명의 NGO대표들의 모습도 어깨가 너럭해 보였다. 궁금하게 찾아본 북한대표의 자리는 회의자료만 쌓인 채로 쓸쓸하게 비어있었다. 왜 못왔을까?

NGO포럼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정부간 회의참가 대표단과 NGO대표의 등록문제등을 토론했다





다양한 과제와 제목들이 350여회에 걸쳐 계속되고 있었고 각급 유엔기구들도 가세하여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는가하면 각 국제여성단체들의 독자적인 세미나, 워크샵이 마치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북경대회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이번 모임에 비해 북경에서는 날마다 370여개의 여러 회의와 세미나, 워크샵 등이 개최될 예정이라는 설명에 부풀린 기대로 돌아왔다.

첫날 행사에 이어 16일에는 김장숙 한국대표가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하여 우리의 위상을 과시했는데 여성계의 세계화 점수는 얼마든지 후하게 줄 수 있는 뿌듯한 현실을 실감하고 돌아왔다.

짧은 일정이나 식사때마다 틈나는대로 외국대표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주유엔 박수길대사의 대접도 받고 김장숙 정부2장관과의 회포도 풀면서 국내에서 바빠서 못만나던 한국대표들끼리의 만남도 충실하게 챙기면서 회의의 공식, 비공식 행사를 누비고 다녔던 일주일을 되새겨 본다.

NGO 회의가 2일간 여성지위위원회와의 합동행사에 이어 3월24일까지 계속된 전체회의와 겹쳐 NGO집회, 세미나, 워크샵등 다양한 과제와 제목들이 350여회에 걸쳐 계속되고 있었고 각급 유엔기구들, 유니세프, 유니팩, 유엔디피, ILO, 유네스코 등도 가세하여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는가하면 각 국제여성단체들의 독자적인 세미나, 워크샵이 마치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북경대회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이번 모임에 비해 북경에서는 날마다 370여개의 여러 회의와 세미나, 워크샵들이 개최될 예정이라는 설명에 부풀린 기대로 돌아왔다.

우리나라 여성단체가 속해있는 많은 국제단체들도 각기의 행사를 준비하고 세계를 다섯지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나라마다의 행사를 펼친다든지 중국이 여러가지 마당을 벌여서 손님접대를 계획하는것 말고도 우리의 관심사가 다함께 엮여지는 가운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정신대문제가 국제적인 회의로 다듬어지고 세계 평화 여성회의가 3천명이상의 국제대표와 많은 중국대표를 참여시키는 국제행사로 치뤄지는 등의 준비는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겹쳐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발표한 평등·발전·평화를 위한 행동을 목표로 하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 사무총장인 젤트루드 몽겔라여사의 강연문을 실으면서 제39차 여성지위위원회와 NGO포럼 사전조정회의 참석 보고를 마친다.

3만명의 여성지도자를 만나서 한껏 우리가 할일을 챙기고 다듬어 나갈 북경대회가 기다려진다.

▶ 북경 세계여성회의로 가는 길 ②

제 39차 여성지위위원회 주제강연

젤트루드 몽겔라 (여성지위위원회 사무처장 겸 제 4차 세계여성대회 사무총장)

북경대회의 목적은 여성의 풍부한 기량을 서로 나누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제 4차 세계여성대회는 각국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NGO들이 소위 말하는 "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세계의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여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각국 대표,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여성지위위원회 제 39차 회기에 위원들과 읊저버 여러분, 그리고 NGO 대표들과 유엔관계자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회기는 9월에 북경에서 막을 올릴 제 4차 세계여성대회의 마지막 준비 모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본회기의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최대한으로 지원할 것임을 Patricia Licuanan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과 사무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1994년은 북경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것을 성취한 한해였습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위원회 회기 이후 대회 사무국은 다섯 차례의 지역 회의, 전문가 그룹 회의, 각종 상담,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세계대회 준비에 몰두해 왔습니다. 각 국가별, 지역별 준비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가별 준비위원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49개 국가별 보고서가 접수된 상태이며, 나이로비 대회에서 채택되었던 전진적 전략의 실천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섯개의 지역별 회의가 개최되어 각기 합의를 통해 행동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지역강령은 각 지역의 관점을 표현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볼 때 많은 공통의 관심사와 요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회의는 많은 분들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노력, 그리고 조직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각 지역 위원회, 회의주최국 정부, 유관 유엔기구, 정부 대표자, 그리고 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각 지역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가 부각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놓인 행동강령 초안의 내용을 비옥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서는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회의에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셨기에 이 자리를 빌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 그룹 회의는 성, 교육과 연수, 여성과 의사결정, 성과 평화를 위한 의제 등을 비롯한 핵심 주제들과 행동강령의 실천과 감독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장치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사무국은 대회준비과정에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는 매우 고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미래는 오늘의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북경대회의 모든 결과도 그들의 것입니다. 이에 각 지역회의는 젊은이들을 위한 포럼을 포함했으며, 그들이 제안한 많은 개정안이 지역 강령에 채택되었습니다. 북경대회에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미래를 손에 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각국 정부는 그 대표단에 젊은이들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의 NGO들이 전세계적으로 가동되어 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와 대화를 나누고, 지역별 강령의 UN강령 작성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준비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Boutros-Boutros Ghali 유엔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장께서 임명하신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고위자문그룹은 지난해 5월에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가졌으며, 차기 회의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과정은 재정적 뒷바침을 제공한 각국 정부와 기부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동반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본 회의의 모든 관계자들을 대신하여 그간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젊은이들, NGO, 각국 정부, 전문가,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의 3주일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제 4차 세계여성대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전세계적인 행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첫째, 여성은 권리와 책임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여성의 일생은 유년 시절을 거쳐 청소년기와 성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직면하는 장애물도 삶의 순환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의 해결 노력도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욕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성의 인간성은 신체적, 지적, 감성적, 사회적, 정신적 특성에 있어서 복잡하면서도 전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요구에 응함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을 간과하면서 한 부분만을 보거나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경대회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10년전 제 3차 나이로비대회 이후 유엔이 취한 여러가지 조치들에

힘입어 여성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행동을 택하기에 보다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열린 환경, 인권, 인구나 개발, 그리고 빈곤 등에 관한 회의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여성의 핵심적인 역할과 욕구에 대해 지난 세차례의 여성대회보다도 진전된 토론을 벌였습니다.

- * 1992년에 각국 정부 대표들은 환경과 개발 문제를 논하면서 여성의 참여 없이는 그 어떠한 정책도 실패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 * 바로 이번 달에 각국 정부 대표들은 여성에 대한 투자없이 빈곤이 퇴치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 1993년 인권회의에서 각국 정부는 소녀와 여성의 권리는 기타 인권과 "양도할 수 없는, 완전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국적과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 * 작년 카이로에서 도출된 인구나 개발에 관한 합의문에서 각국 정부는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가족계획 방법과 출산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생식적 건강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언들은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은 지리, 언어, 종교, 또는 문화로 인한 그 어떠한 경계선으로 인해 중단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성은 모든 문화의 반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같이 문화의 소유자이며 창조자이며 수호자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회의들은 또한 소위 "여성 문제"로 일컬어졌던 것들이 이제 사회 전체를 통해 중요한 현안들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국은 이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성의 차원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있어서 유엔이 조성해 온 세계 여론에 힘입어 각국은 혼자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회의들은 시민과 정부간의, 세계 여러 국민들 사이의, 그리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새로운 대등한 동반자적 관계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평등의 원칙위에 발전되고 평화로운 세상의 창조를 위해서는 동반자적 관계와 대화가 핵심적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평등, 개발, 그리고 평화는 1975년 제 1차 멕시코시티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한 세계적 전략이 채택된 이후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그 전략은 아직 우리를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달케 해주지 못했으며, 이에 우리의 행동과 헌신이 북경대회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1995년 우리에게 남은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매년 50만명의 여성이 가족 계획을 포함한 기초적이고도 포괄적인 보건 진료로 거의 모두 예방될 수 있는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1분에 한명 꼴입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어린 소녀들이 매춘굴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여성이 걷기에 안전한 길과 심지어는 살기에 안전한 가정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으로 인간의 기본 욕구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적인 HIV/AIDS 전염은 한

세대를 말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성이 우선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로 특징지어지는 시대에 여성의 다수는, 특히 농촌의 여성들은 아직도 "나무 패며 물 길는" 하급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진보된 세계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1993년에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의회진출은 평균 9%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1987년 보다도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힘들게 얻었던 것들이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방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로비 이후에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간 몇몇 진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또는 전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 * 과거 여성대회는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인 공약을 처방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여성의 인간성과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모든 분야에서 제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90년이 되자 10명의 남성 근로자에 대해 6명의 여성 근로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1970년에 비해 두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용의 기회와 보수에 있어서의 차별,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의 무거운 책임은 개도국에서나 선진국에서 여성을 경제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한 남성-여성, 가족-지역사회의 동반자적 관계는 여성의 발전과 평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를 성취하지 못한 이유는 자원의 부족, 행동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부재, 책임의식의 부족, 그리고 여성을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장치의 부적합성 등입니다.
- * 지난 10년간 전세계적 경제 불황과 침체, 구조 재조정 정책과 국제협력력을 위한 자원의 삭감 등도 여성의 발전을 저해했습니다. 여성과 어린 소녀들은 경제력의 부족과 과중한 책임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등학교 등록에 있어서 남녀 동률이 달성되었으나,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성인 9억명 이상이 문맹이며, 그 가운데 2/3가 여성입니다. 왜 아직도 가야할 길이 이다지도 멀까요? 이는 역시 자원의 부족, 정치적 의지의 결여, 그리고 장치의 부족 때문입니다.
- * 지난 10년간 내란과 인종 분쟁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세계 5천만명의 난민과 이재민들 가운데 80%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이는 웬만한 크기의 국가, 지구상에서 가장 덜 발전되고 억압받고 침해당한 국가중의 한 나라의 인구와 맞먹는 것입니다. 전쟁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여성들도 성적 희롱, 강간, 학대, 그리고 순진한 소녀들의 매춘행위를 포함하는 인신매매의 상처나 위협으로부터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주요 업적은 이와 같은 악에 대해 NGO들이 침묵을 깨고 각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집과 선택의 폭 가운데서도 여성의 능력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회의 각계 각층으로부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기하고 여성이 더 이상 동정받고 보호되어야 할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로서 간주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과 재능, 그리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생존력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문제해결에 그들의 지식이 무시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녔으며, 나라의 국가적 총생산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의 세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사람들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장애물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입니다.

북경대회의 목적은 여성의 풍부한 기량을 서로 나누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제 4차 세계여성대회는 각국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NGO들이 소위 말하는 "여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세계의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여성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북경에서 채택될 행동강령 초안은 위원회가 정한 11개 관심분야에 대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빈곤, 의사결정, 여성에 대한 폭력, 경제적 능력 성취, 보건, 교육, 여성의 인권, 대중매체, 그리고 환경 등에 관한 200여개 이상의 행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모든 행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만을 추린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본 강령이 행동의 나열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행동주체, 즉 강령을 실행에 옮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관과 분야에 대한 각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그리고 북경에서 취해질 가장 중요한 결정은 강령의 지시를 실제로 옮기도록 여러 기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주기위한 제도적, 재정적 조치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동참할 동반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각국 정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대회 강령은 정부가 여성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 순위와 자원의 재분배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는 또한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개발과 신체적 안전을 주기위한 법의 제정, 검토, 집행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공문제에 있어서의 책임성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생활의 모든 분야를 침투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장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힘의 관계가 규정되는 가정 내에서의 차별적인 태도와 관습과 상호 원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변화는 각 정부가 의사결정과 입법 과정에 있어서 여성참여의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성취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성이 입법부의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한, 그 어느 나라도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성은 초대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권력에 있어서도 주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임계질량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향해 나라들을 동원하는데 유엔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유엔 체제 안에서도 행동이 취해져야 합니다. 여성의 지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여러 국제단체들은 회원국 여성들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구조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유엔하의 세계체제는 "경영의 문화, 평가와 책임의 체계, 그리고 채용과 승진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요구된다는 Boutros-Boutros 사무총장의 말의 뜻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총장께서는 유엔에서, 나아가서는 전세계를 통해서 여성의 권리와 잠재력은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유엔 안에서의 책임성도 중대한 것입니다.

NGO들은 필수적인 행동제입니다. 개개인의 어린 소녀나 여성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NGO들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차원에서 NGO들은 문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변화의 요원들입니다. 그들은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관심사를 처음으로 집단적으로 제시하고 그 광범위함을 표출시킨 것이 NGO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을 대변해 줍니다. 이에 강령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NGO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NGO는 그 실천과정의 민주화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 힘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의 모든 분야와 강령의 주요 관심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민간 부분도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공공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 분야에서도 여성은 동등하고 능동적인 주체이며 의사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북경대회는 여성의 발전을 위한 대화와 동반자적 관계에 민간분야를 포함시키는 첫번째 세계여성대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강령 초안이 재정적 자원과 장치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몇달동안 사무국은 필요한 재정적 자원의 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할 것입니다. 그 견적서는 예상비용이 카이로 합의문 앞서 있었던 공약에 어느 정도로 이미 포함이 되었는지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강령은 각국 정부들이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원을 약속해야 된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정적, 사회적 이득의 실현이라는 전망은 비효과적인, 심지어는 낭비적이고 파괴적인 군비지출로부터 여성에 대한 투자에로의 자원의 재배치를 추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정치적 의지입니다. 여성의 의회 참여에 대한 목표나 의무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적 자원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성에 기본적인 차별을 불법화시키는 일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제 4차 세계여성대회는 자원에 대한 공약과 더불어 행동에 대한 공약을 얻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분석이 아닌 보다 심도있는 행동, 바로 이것이 북경대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금번 회의와 6개월 후의 북경 대회 사이에 각국 정부는 행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여할 자원을 명시하고, 세계의 여성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선언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준비를 갖추고 북경에 올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수사적인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가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행동강령의 기본인 것입니다.

번역 : 강경화 (본회 국제관계위원)

▶ 소비자정보



무료예식장 개방시설 현황

생활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성수기에 편중되는 우리나라 혼례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례식장 부족문제를 해소시켜 국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무료예식장 개방시설 현황을 소개 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

94년말 현재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평)	전 화 번 호	수용인원(명)
중구 구민회관	중구 을지로 6가 18-14	500	268-4280	2,000
용산구 구민회관	용산구 한강로 3가 63-397	369	790-0491	1,470
성동구 구민회관	성동구 행당동 144-17	177	292-2076	700
동대문구 구민회관	동대문구 장안동 354-5	208	242-2957	830
종로구 구민회관	종로구 면목동 산 78-6	60	490-3310	240
성북구 구민회관	성북구 돈암동 606	343	924-6781	1,370
도봉구 구민회관	도봉구 창동 303	110	901-5310	440
노원구 구민회관	노원구 중계동 547-7	57	972-6158	220
강서구 구민회관	강서구 내발산동 산12	200	694-8924	800
구로구 구민회관	구로구 구로동 102	156	860-2592	620
영등포구 구민회관	영등포구 당산 3가 2-12	287	670-3410	1,140
동작구 구민회관	동작구 신대방동 396	230	841-8408	920
관악구 구민회관	관악구 봉천4동 1589-13	104	880-3394	410
서초구 구민회관	서초구 양재동 25	247	575-0900	980
강동구 구민회관	강동구 천호동 41	136	488-5542	540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서대문구 홍은동 산26-155	170	330-1560	680
구청강당(22개 자치구)				1개소당 300명 이상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평)	전 화 번 호	수용인원(명)
강동사회복지관	강동구 천호3동 397-43	41	475-4585	160
신월사회복지관	양천구 신월2동 615-43	80	699-3814	320
잠실사회복지관	송파구 잠실동 188-18	60	423-7807	240
가락종합복지관	송파구 가락동 481	40	449-2341	160
길음사회복지관	성북구 길음3동	50	985-0161	200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성북구 월곡동 77-45	60	943-0251	240
번3동단지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구 번2동 237	30	984-6777	120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중계동 103	80	949-0123	320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노원구 중계동 3단지	45	952-0333	180
가양7종합복지관	강서구 가양동 택지개발7	50	668-8600	200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 구로3동 256-7	84	852-0525	330
상도종합사회복지관	동작구 상도동 456	493	824-6011	1,970
수서평화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수서동 택지개발지구	75	459-2696	300
하트하트종합사회복지관	송파구 가락2동 149-6	220	430-2000	880
강서청소년회관	강서구 발산동 산4-5	60	607-2456	240
사당청소년회관	동작구 사당3동 산24-17	278	595-0231	1,110
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68	841-2077	270
하상장애인복지관	강남구 일원2동 12-48	100	451-6000	400
근로자종합복지관	광명시 하안동 740	200	685-4944	800
자유회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150	849-7871	600
강서농협	강서구 방화동 597-30	120	661-0321	480
마포우체국	마포구 도화동 17-1	160	716-8503	640
중랑경찰서	중랑구 묵동 249-1	50	973-4522	200
한강고수부지	한강구 이천지구	3,636	791-0722	14,540
양재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 236	303	570-6395	1,210
서울대공원	과천시 막계동 159-1	220	500-7142	880
◇	◇	242	◇	960
◇	◇	91	◇	360
◇	◇	182	◇	720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평)	전 화 번 호	수용인원(명)
보라매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395	14,790	832-0102	59,160
서소문공원	중구 의주로 16-4	121	260-2395	480
아시아공원	송파구 잠실 84	909	410-3395	3,630
낙성대공원	관악구 봉천동 228-2	364	880-3395	1,450
파리공원	강서구 목동 906	1,182	640-3395	4,720
목마공원	◇ 910	764	◇	3,050
오목공원	◇ 921	1,485	◇	5,940
양천공원	강서구 신정동 320	485	◇	1,940
신투리공원	강서구 신정동 310-7	1,818	◇	7,270
어린이대공원	성동구 능동 18	1,000	457-7054	4,000
◇	◇	300	◇	1,200
올림픽주경기장	송파구 잠실동	300	417-8885	1,200
목동운동장	양천구 목동	300	644-0644	1,200
종합운동장수영장	송파구 잠실동 10	300	417-8840	1,200
세종문화회관분수대	종로구 세종로동	100	735-0761	400
세종로공원	종로구 세종로동 80-1	2,680	731-0490	10,720
배봉산근린공원야외공연장	동대문구 전농동 산32	330	920-1490	1,320
구로부녀복지관	구로구 시흥4동 산139-12	96	802-0186	380
마포부녀복지관	마포구 용강동 70-2	70	719-6307	280
노원부녀복지관	노원구 중계동 573-1	84	972-5507	330
목동청소년회관	강서구 목동 신시가지6블럭	143	645-1957	570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중랑구 면목동 산 78-5	90	490-0221	360
남부청소년회관	영등포 영등포 7가 57	77	677-9200	300
문래청소년회관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3	99	675-7776	390
남부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봉천동 726-3	37	888-6144	140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용산구 효창동 산9-1	50	713-0374	200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하계동 170-1	85	948-1637	340
북부사회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1146-11	48	934-7711	190
동작사회복지관	동작구 대방동 5-1	40	814-8114	160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평)	전 화 번 호	수용인원(명)
중대사회복지관	관악구 봉천동 890-1	15	872-5802	60
삼전사회복지관	송파구 삼전동 172	81	421-6077	320
풍납사회복지관	송파구 풍납동 165-2	81	474-1201	320
성산사회복지관	마포구 성산동 350	191	374-5885	760
영등포사회복지관	영등포구 신길동 440-56	38	846-1117	150
성북사회복지관	성북구 하월곡동 96-113	61	916-9194	240
봉천사회복지관	관악구 봉천5동 4-2	62	886-9941	240
송파사회복지관	송파구 거여동 5-8	17	406-9979	70
마포사회복지관	마포구 신공덕동 15-66	80	714-8600	320
은평사회복지관	은평구 수색동 8-15	32	307-9880	130
구세군사회복지관	도봉구 미아동 791	432	986-0988	1,720
국민은행이촌지점	용산구 이촌1동 302-52	200	797-5381	800
남산예술원	용산구 한남2동 726-157	150	796-2487	600
에스콰이어	성동구 성수1가동 656-294	231	499-7011	920
옥구회관	성북구 삼선동2가 216-6	50	742-0624	200
생명의친화	성북구 하월곡동 96-1155	60	916-9194	240
한일문화회관	노원구 공릉동 499-52	130	974-2244	520
서울약사신용협동조합	관악구 봉천동 1679-24	118	874-8288	470
건설공제조합	강남구 논현동 71-2	100	548-0101	400
한일은행 별관	강남구 논현동 261-1	140	549-1542	560
럭키금성연수원	강남구 역삼동 679-3	110	567-3111	440
신흥교회	용산구 용산동2가 1-712	104	754-2456	400
천주교청과동교회	용산구 청파동3가 84-5	90	704-0045	360
도원동교회	용산구 도원동 4-4	40	712-6012	160
용산제일교회	용산구 도원동 4-2	40	713-2308	160
삼각교회	용산구 한강로1가 256	160	749-1243	640
충신교회	용산구 이촌1동 302-67	303	793-7740	1,210
서호교회	용산구 서빙고동 4-3	220	793-2147	880
온누리교회	용산구 서빙고동 241-96	350	793-0686	1,400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평)	전 화 번 호	수용인원(명)
중앙교회	용산구 보광동 253-2	130	798-9475	520
한광교회	용산구 보광동 620-171	340	794-9389	1,360
자양교회	성동구 자양동 228-15	150	455-6071	600
금란교회	중랑구 망우동 340-1	60	434-6713	240
영세교회	중랑구 중화동 282-11	70	433-3994	280
노원경찰서	노원구 하계동 27-4	90	949-1133	360
은평경찰서	은평구 불광3동 산24	230	352-0855	920
관악경찰서	서초구 방배2동 370-1	50	582-7132	200
신당1동 새마을금고	중구 신당동 233-93	50	232-8994	200
새마을금고	은평구 갈현동 432-18	60	385-0591	240
중림마을회관	중구 만리동 6-1	50	392-7194	200
정릉2동회의실	성북구 삼선동 966	50	914-0954	200
석관2동회의실	성북구 석관동 261-394	60	962-2515	240
수궁동회의실	구로구 궁동 213-42	35	611-1941	140
신림5동회의실	관악구 신림5동 1439-2	231	878-5991	920
삼선국민학교	성북구 삼선3가 30-4	60	742-8792	140
동부적십자혈액원	노원구 상계동 764	90	952-0322	360
국립보건원	은평구 녹번동 54	450	380-1604	1,800
양천적십자회관	양천구 신월동 472-1	40	603-0391	160
가양하수처리장	강서구 마곡동 91	50	666-6283	200
근로복지공사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67	98	634-9131	390
대한주택공사연구소	강남구 삼성동 16	80	513-3244	320
도로교통안전협회(3층)	중구 신당동 171	85	233-3541	340
중계근린공원	노원구 중계동 507-3	330	950-3395	1,320
동나무공원	노원구 508	330	노원구 508	1,320
구로거리공원	구로구 구로5동	300	860-2395	1,200
용산가족공원	용산구 용산동6가 168-4	1,500	792-5661	6,000

국회여성정책연구 포럼, 첫 토론회 실시

국회차원에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새로 생긴 「국회여성정책연구포럼」(회장: 주양자의원)이 3월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첫 토론회를 가졌다.

첫 토론회 주제는 "세계화와 한국의 가족법"을 삼았다. 주의원이 의견을 모은 결과 여성계의 큰 성과인 가족법 1차개정에 이어 가족법의 몇가지 미진한 문제를 다루자는 의견이 많아 이 주제를 정했다는 것이다.

한봉희 동국대 법학과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숙자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고, 박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임상담위원, 양재혁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김숙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89년의 가족법 개정(91년, 1월1일 시행)으로 가족법상 여성차별이 상당부분 개정됐으나 유명무실한 호주제도가 존속되는데다 동성동본자 사이는 혼수여하를 불문하고 혼인을 금한 동성동본 불혼규정을 그대로 둠으로써 남녀불평등의 근원을 없애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 2의 가족법 개정운동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역설했다.

박배희 상담위원도 "남성혈통만을 중시하는 현행 동성동본 불혼규정과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가족법상의 남녀차별은 계속되는 것"이라며 여성들이 목소리를 모아 개정운동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여성정책연구포럼 회원은 민주자유당 11명, 민주당 7명, 신민당 1명 등 19명으로 의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민자당: 김광수, 민태규, 박명환, 박종웅, 배명국, 신재기, 이용희, 이인제, 정옥순, 정주일

▲민주당: 박계동, 박석무, 손세일, 신진욱, 이우정, 장영달, 조세형

▲신민당: 강부자

정무 제2장관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

정무 제2장관실은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참가한 뒤 활동보고회를 가졌다.

3월15일부터 4월4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제 39차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김장숙 정무 제2장관은 "한국여성의 세계화 원년을 맞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자리매김을 어느정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것 같다"고 자평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일명 「여성분야의 유엔총회」로 불릴만큼 정치·경제·사회·교육분야에서의 여성지위를 높이기 위한 사안들을 폭넓게 다루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9월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 4차 세계여성회의의 준비작업을 마무리하는 회의를 겸해 평소일정보다 1주일가량 길게 열렸다. 45개 위원국 등 세계 1백70여개국, 4백 50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82년부터 옵저버로 참가해오다 94년 위원국 자격을 얻어 참석을 하였다.

김장관은 16일 기초연설을 맡아 북경대회의의 준비상황과 한국의 여성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한국후보(김영정, 적십자사 부총재)가 선출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도 펴고 돌아왔다.

전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자원장, 정무 제2차관에 임명

정무 제2차관에 김정자 한국여성개발원장이 임

명됐다.

김정자 신임차관은 "12년째 여성개발원에서 일해온 경력을 여성정책을 세우는 일에 발휘하고 싶다"고 계획을 밝혔다. 여성개발원장 재임시 명예퇴직제를 마련, 개발원내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인력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던 김 차관은 "인원감축의 칼을 댔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여성개발원이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한 조직의 효율화 때문에 도입한 제도였다"고 소신을 말했다.

김차관은 앞으로 차관의 자리에 걸맞게 장관을 보좌하고 실무자들이 일을 잘 해나가도록 돕겠다며 행정부처마다 여성전문인력을 키우도록 꾸준히 제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주부모임 발대식 가짐

한국여성민우회는 녹색주부모임을 만들고 3월15일 발대식을 가졌다.

「종량제를 감시하는 녹색주부모임」이라는 이름처럼 쓰레기종량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지역주부모임이다.

서울지역 주부 70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쓰레기분리수거 감시활동을 비롯, 백화점 재활용코너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과대포장상품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펴기로 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개설

「가족과 성」상담소(소장: 양해경)가 활동을 시작했다.

3월25일 중구문화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상담활동에 나선 「가족과 성」상담소 양해경 소장은

개소전부터 빗발치는 전화가 있었다며 "가정문제의 풍요한 원인을 제공하는 성문제를 중심으로 풀어갈 가정문제상담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소식에는 이우정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순 전 정무 제2차관(민자당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등 여성계인사들과 변호사, 민우회 회원 및 가족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가족과 성」상담소는 한국여성민우회 부설기관으로 지부를 계속 늘려가며 상담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부소장은 오숙희(여성학자), 김근숙(상담전문가), 최보문(강남성모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씨 등 3명이며 운영위원(위원장: 지은희)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은희(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이해성(이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이근덕(신경정신과 전문의), 박영옥(경원대 강사), 안명옥(차병원 여성건강증진센터 소장), 이양자(세무사), 김현주(변호사), 이경숙(여성민우회 상임공동대표), 이금라·정강자(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

한국여성의전화가 결성한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3월9일 발족했다. 여성평화 변호사모임은 여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가사사건 등 여성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주로 맡게 된다. 여성의 전화는 상담사례중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모임에 연결해 줄 계획이다.

이 모임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수임료를 낮춰주고 변호사와 운영위원장, 여성의 전화가 공동회의를 거쳐 무료법률구조의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엔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있다.

이 모임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92년말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법률적 도움을 청하는 상담이 92년 92건에서 92년 1백60건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성평화 변호사모임은 서울, 인천, 성남, 수원, 부산, 전주, 광주, 울산 등 전국 8개 지부를 두고있다.

이대 정세화교수, 새 여성개발원장에 선임

김정자 여성개발원장이 정무 제 2차관으로 옮김에 따라 정세화 이화여대 교수가 새 여성개발원장에 선임됐다. 이대 교육학과 교수로 일해온 정세화 신임원장은 "여성문제를 연구하는데 그치지않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여성개발원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원장직을 맡았다"고 밝혔다. 10년전 한 세미나에서 교과과정속의 남녀 불평등사제를 지적했던 정원장은 최근 중고교과정에 여학생은 가사, 남학생은 기술과목으로 분리됐던 것이 가사기술이라는 통합과목으로 개선된 것이 작은 결실이라고 감회를 표했다.

정원장은 앞으로 여성개발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외부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지방선거대비 여성후보자교육 실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3월 6~8일 크리스찬아카데미하우스 다솜교육관에서 지방의회 여성후보자와 선거참모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제4회 지방선거대비 여성후보자교육」을 실시했다. 선거홍보전략과 유세방법, 연설연습 등 실제적인 교육내용으로 여성후보자가 지방의회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성동본 금혼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 모임, 현행 가족법 고치는 작업에 나섬

동성동본 불혼규정으로 혼인신고도 못하고 그늘진 삶을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동성동본 금혼법 개정을 위한 당사자 모임」은 "동성동본 남녀는 혼인을 할 수 없다는 현행 가족법규정은 명백히 결혼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며 이를 고치기위한 작업에 나섰다. 우선 서울지역 회원부부 20쌍이 주축이 돼 구청에 혼인신고를 시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불수리증명서」를 발급받겠다는 것. 이 서류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낸 뒤 가정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같은 '경주 최씨'로 동감내기인 최상옥씨와 결혼한 이 모임 최상한 회장은 이해찬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며 여성문제에도 의식이 상당히 깨어있는 남성으로 평가된다.

당사자모임 회원은 전국 1백쌍으로 법적 자문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받고 있다. 당사자모임 최상한 회장은 동성동본에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을 깊이 연구해왔는데 "역사적으로 신라시대때 동성동본 혼인이 유행하는 등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하는 일이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는 주장은 사실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모임이 헌법소원을 내게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변호인단이 도움 계획이라고 광배회 가정법률상담소 상임상담위원이 전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2대 소장 김홍한변호사 취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2대 소장에 김홍한변호사가 3월30일 취임했다. 상담소 설립자이자 1대 소장을 지낸 이태영소장이 건강문제로 은퇴함에 따라 바통을 이어받은 김변호사는 이소장의 만사위로 서울대 법대 클래스메이트이기도 하다.

김신임소장은 가정문제예방을 위해 예비부부, 신혼부부, 중년부부 등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을 지혜롭게 하기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가정법률상담소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포부다.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직장여성의 프로입문 강좌」 안내

본회는 취업여성의 직업의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직장여성의 프로입문 강좌」를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던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점검하고 동료와의 토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직장인이 되도록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어가는 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5월 16~25일 중 화, 목요일(4회)
오후 7시~9시
- 장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강당 (용산 소재)
- 대상 : 고졸 이상의 취업여성
- 참가신청 및 문의 : 796-4560, 797-5778

○ 일정 및 강의내용

5/16 (화)	5/18 (목)
사회발전과 여성의 역할 -한정자 (한국여성개발원 수석 연구원)	여성과 직업의식 -박숙자 (성신여대 강사)
5/23 (화)	5/25 (목)
직장여성의 이미지 메이킹 -박효신 (한국광고주협회 홍보 부장)	직장 여성의 권리와 의무 -윤자야 (공인노무사)

전국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본회는 3월29일~30일 경주현대호텔에서 100여명의 여성단체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를 개최하였다.

본회 임원, 위원, 회원단체 및 시도여협 임원, 관련기관 인사들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개회식에서 이연숙 본회 회장의 개회사와 박광희 경주시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세계화 시대와 여성의 의식개혁'에 대한 박승중양대 경제학과 교수의 강의와 '생활에서의 경제정의실현'에 대한 유재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의 강의가 있었다. 이 두 강의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여성으로서 실천가능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바른 가

치관 정립 및 의식개혁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어 참석한 여성지도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저녁의 유대 강화의 시간에는 주제강연 내용을 응용한 각종 풍토들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여성단체의 활동방향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종합토론을 가졌다.

전국에서 모인 여성지도자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지도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지에 대한 재다짐의 시간이 된 이번 연수에는 손명순 여사의 격려전보와 경북여협과 경주시 여협의 따뜻한 환대등으로 행

사의 즐거움이 배가되었다.

「한·베트남 사랑나눔전」 개최

본회는 베트남에서 살고있는 한인 2세 어머니들을 돕기위한 「한·베트남 사랑나눔전」을 3월 20일~4월 2일까지 광화문 일민문화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도예 등 5개 부문 작가 1백62명이 작품을 냈으며 수익금은 베트남의 한인 2세(라이 타이한) 및 그 어머니를 돕는데 쓰이게 된다.

본회 회원단체 30개 단체로 늘어

한중여성교류협회(회장: 하영애)와 열린 세계 사회 복지연구소(회장: 윤송자)는 4월 11일 본회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이로써 여협의 회원단체수는 30개 단체로 늘었다.

비례대표의석 여성할당을 위한 활동활발

여성 할당제 명시에 관한 건의문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공동대표: 이연숙, 이미경)는 통합선거법 개정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3월 15일 '통합선거법 개정안 중 지방자치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명시에 관한 건의문'을 민자당의 이춘구 대표위원과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에게 전달하였다. 양당의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여성위원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함께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해 민자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에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한 전문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대부분의 의석을 여성에게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민주당은 50%정도를 여성에게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성연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한 민주당의 방침에 대하여 여성연대측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이기택 민주당 총재를 다시 방문하여 "그동안 여당에 비해 훨씬 전향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해온 민주당이 이런 방침을 세운데 대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비례대표 의석 10%를 모두 여성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광역의회 진출은 0.9%에서 약 9%로 늘어나는 것이며 이것은 현재 여성계가 주장하고 있는 20% 여성의석이나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30% 여성의석에는 상당히 미달하는 것이므로 비례대표 의석 10% 전부를 여성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

1. 통합선거법 개정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여성계가 주장해온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광역의회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광역의회 비례대표제는 0.9%에 불과한 여성의 낮은 의회진출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을 특별히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통합선거법 내용에 여성할당을 명시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고 정당의 자율에 맡길 경우 여성할당에 대한 보장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3. 통합선거법에 10%의 비례대표 의원 중 전원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10%의 비례대표 의원 전원(현 866명 중 86명)이 여성이 된다면 이의 유엔에서 권장하는 여성의석 30%와 여성계가 요구해온 20% 여성의석에는 상당히 미달하는 것입니다.
4.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는 여성의석 20%확보를 목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10%비례대표 여성할당 법적 보장과 10%여성공천 할당을 통하여 20%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기대합니다.

라도 여성의 광역의회 진출은 0.9%에서 약 9%로 늘어나는 것이며 이것은 현재 여성계가 주장하고 있는 20% 여성의석이나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30% 여성의석에는 상당히 미달하는 것이므로 비례대표 의석 10% 전부를 여성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전

달하였다.

이에 대해 이기택 총재는 "비례대표의 50%정도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주기 바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민자당의 방침에 대하여

국제여성승공연합

서울시 7개지부 순회교육

국제여성승공연합은 지난 1월 17일 성북지부를 시발로 하여 3월 20일 은평지부까지 서울시 7개지부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문수자회장은 강의를 통해 '국제정세와 남북통일, 남북통일기금 통장갯기운동,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화'라는 주제로 회원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인지하도록 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하였다. 또한 보다 안정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굳건한 경제발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국민 모두가 올바른 소비문화를 생활속에 정착시킬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지부임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연합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한영양사회

환경보전세미나 개최

대한영양사회는 지난 3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영양사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후원한 「집단급식소에서의 음식물 쓰레기감량 및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환경보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집단급식소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효과적인 처리방법을 논의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최한 이 행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급식시설의 쓰레기 관리정책을 알아보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처리방안을 찾아보는 자리였다.

세계적으로 인류 생존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발전에 밀려 그동안 도외시되어 왔던 환경문제가 국민적인 관심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최근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하여 다각도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또한 수질 오염과 위생상 문제가 큰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 의무화를 시행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와 관리라는 커다란 책임을 지고 있는 영양사로서 그 대책과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삼고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등록과 개회식에 이어 서은경 대한영양사회 회장을 좌장으로, 홍성철 환경부 폐기물관리과장의 "대단위 급식시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부 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진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의 토의가 있었고,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광동경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김병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영양과장의 토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김남천 서울보건전문대학 환경관리과 교수가 "급식시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를, 이

여성연대측은 이를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민자당 이춘구 대표위원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민자당 대표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변답이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

관한 이야기가 나누어졌다.

동정란

NGO포럼 사전조정회의 참석

본회 이연숙회장과 박영혜부회장은 3월13일~14일까지 뉴욕UN 본부에서 열린 NGO포럼 사전조정회의(Non-Government Organization's Pre-Consultation Meeting)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오는 8월말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NGO포럼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NGO대표들이 모여 그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경오 명예회장, 자민련 부총재 취임

본회 김경오 명예회장은 지난 3월 20일 자유민주연합 부총재로 취임하였다.

이연숙회장, 평등부부 희망 예비부부 주례

본회 이연숙회장은 평등한 부부가 되기를 희망하는 홍승호, 이미영 예비부부의 청을 받아 지난 4월 8일 오후 3시 만리장성에서 주례를 하였다.

작년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본회가 주최한 "평등한 부부관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 기사 및 정부 제2장관실의 평등부부상 제정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는 두 사람은 평등부부에 맞는 주례사를 희망하여 본회 회장의 주례를 청하게 되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옥기 부회장, 국민포장 수상

본회 부회장인 이옥기 대한조산협회 회장은 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 보건의 날' 행사에서 우리나라 보건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지방여협 소식

대구여협에서는 본회의 후원을 받아 지난 3월31일, 4월1일 양일간 1박2일의 일정으로 청구연수원에서 '세계화, 미래화를 향한 대구 지역 여성지도자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6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경제교육은 "시장개방화시대에 대처하는 여성의 역할과 자세"-최용호(경북대교수), "자연재활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류승원(영남자연생태보존회장), "시장변화와 합리적인 소비생활"-이영옥(계명대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둘째날에는 최종덕 YWCA회장이 여성단체실무교육을 하였으며 이어 4분과로 나뉘어 분임토의를 실시하였는데 이 토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역경제발전과 건전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활동에

에 대한 토의는 정홍관 (주)H.R.S. 이사가 발표하였고, "대단위 급식시설의 바람직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이길철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 연구부장이 주제발표를, 김찬채 대한양돈협회 이사와 박해경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기획실장이 토의를 맡았다.

이어서 김송희 (주)동국산업 관리부 과장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사례발표가 있는 다음 종합토의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 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에 대한 결의대회 및 전담배부를 끝으로 전일정을 폐회하였다.

중앙부인회

여성취업대비, 단기적응훈련 실시

중앙부인회에서는 탁아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년 이후 여성인력의 활용과 그들의 사회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여성유취인력 활용의 일환으로 중년이상 여성의 취업에 대비한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한다.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던 주부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장적응기능을 빠른 시일내에 습득하게 하여 취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주부 및 중년이상의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훈련실시계획은 아래와 같고 신청은 중앙부인회에서 받는다.

훈련실시계획

- ①직종 : 식당종사자
- ②인원 : 60명
- ③신청기간 : 4월 15일까지
- ④훈련기간 :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 ⑤교육비 : 무료

⑥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⑦신청 및 문의처 : 928-2107, 924-4878

대한간호협회

이사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월 16일 금년도 대의원총회 후 첫 이사회를 열고 제4회 전국대회를 오는 5월 25일, 26일 양일간 「환경과 간호」를 주제로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간호대상 및 간호문학상 시상, 한국간호사의 윤리강령채택 등이 있게 될 개최식 행사에 이어 주제강연, 발제강연 등의 학술프로그램과 간호사들의 숨은 재주를 선보이는 '회원의 밤' 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전국대회 등록비를 1인당 5만원으로 정하고 학술프로그램을 간호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전국대회에서 첫 수상을 배출하게 되는 간호대상이 우리나라 간호계 최대의 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나이팅게일기장 수상자도 간호대상 수상후보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상훈규정을 개정, 의결했다.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일양국 교류음악회 개최

한일여성친선협회는 광복 5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고 한일 양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교류음악회, '플룻과 하프의 밤'을

개최하였다.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 연강홀에서 외무부, 주한일본대사관관광보관, KBS, 일한문화교류기금, 한일협력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음악회는 일본의 세계적인 하프리스트 시노자끼 아야코씨와 본회 이사인 플루트 강영희 교수와의 협연으로 이루어졌으며 본회 이사, 회원은 물론 일본인들의 많은 협조로 496석의 좌석이 꽉 메어지는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이자리에는 한명숙 외무부장관부인을 비롯, 주한일본문화원장부부등 많은 내외분이 참석해 주었으며 어렵고 미묘한 양국의 관계도 연주회의 아름다운 화음과 같이 여성들이 앞장서서 풀어 나가는 다짐이 있었다.



한일양국대학생교류

본회에서 실시중인 연교류사업인 한일학생교류가 제18회를 맞이하여 지난 3월 7부터 3월 12일까지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를 향한 양국학생들의 자세"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일본의 남녀대학생 17명과 한국대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행사를 비롯하여 양국대학생 친선농구대회, 경복궁 민속박물관 및 전쟁기념박물관 견학, MBC방송국방문 간담회, 민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전통

국악 공연관람이 있었다.

3월 11일, 12일 양일에 걸친 토론회는 교육과정에 나타난 양국에 대한 인식과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소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양국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친선의 중요성을 깨달은 계기가 되었다.



가톨릭여성연합회

제 29차 정기총회 개최

가톨릭여성연합회는 지난 3월 28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5년도 사업계획으로 지도자양성 및 훈련, 신앙교육 및 문화사업, 환경보존 및 소비절약, 후원회 사업, 봉사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활동, 평화증진 및 국제친선 등을 장하고, 이에 필요한 1억3천6백여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제18대 회장에 박애주씨가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 김금숙, 김신실씨가 선출되었다. 15명의 이사가 유임되었고 가톨릭여성신앙대학 각기별(1기~4기) 회장과 신앙대학 졸업생중 2명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가톨릭여성신앙대학 개강

가톨릭여성신앙대학 제5기생 3학과와 제6기생 1학기가 4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명동교육관 203호에서 교회사, 성서에 나타난 여성상, 가톨릭음악, 가톨릭문화의 주제로 개강된다.

국제존타한국연합회

고베시 지진피해 위로금
¥100,000 전달

국제존타한국연합회는 고베시 지진으로 인한 위로 서신 및 위로금 ¥100,000을 국제존타 Area I Director Kikuko Hara에게 전달하였다.

정기이사회 개최

국제존타한국연합회는 지난 3월 26일 부산 동래 관광호텔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28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

이번 전국대회의 주제는 "여성과 환경"으로 결정되었으며 워크샵은 제1분과는 인권, 제2분과는

여성건강, 제3분과는 세계의 조화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10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릴 제3차 26지구대회 준비에 관하여 토의했다.

표지의 말



脫我(off self)
홍정희 작

홍정희씨는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1979년 미국 미시간 미술대학에서 교환교수로 1년간 연구했다. 71년 제20회 국전문화공보부장관상, 78년 제1회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76년 3회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73년 첫 개인전 이래 13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상파울로 비엔날레 등 국제전과 신인미술전, 창작 미술협회전, 양가주밍전, 60년대 한국현대미술 영포르델 그 주변전, 오늘의 작가전, 서울현대미술제, 현대미술초대전, 현대한국회화전, 한국미술 오늘의 상향전, '94 화랑미술제등 각종 기획전과 그룹전에 수차 초대 출품했다.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정책간담회 •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0원
김방림 (민주당여성위원회 위원장)	100,000원
윤용숙, 김유선, 박애선 (여성문제연구회)	100,000원
박유정 (동아텔레비전 전문위원)	100,000원
오인화, 이순화, 서명숙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50,000원
한국 꽃꽃이협회	50,000원
안목단, 방호선, 전은미 (한국부녀복지연합회)	50,000원
한영화 (한국자수문화협회 부회장)	50,000원
한양순 (연세대 교수)	50,000원
대한약사회여약사회	50,000원
김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50,000원
정영숙, 김옥이 (한국퇴역여군회)	50,000원
박위자 (한국자수문화협회 부회장)	50,000원
김정희 (국제소품티미스트 총재)	30,000원
김덕실 (청년여성교육원 총무)	30,000원
이주영 (서울 YWCA 회장)	30,000원
윤선규 (대한가족계획협회 모자보건과장)	30,000원
이경자 (한국간호조무사협회 회장)	30,000원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20,000원
서은경 (대한영양사회 회장)	20,000원
윤수경 (이우정의원 보좌관)	20,000원
김명자 (숙명여대 교수, 본회 위원)	20,000원
김조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사무처장)	10,000원

• 전국여성단체지도자연수 •

김장숙 (정무 제 2장관)	금일봉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10,000,000원
김향란 (대구보건전문대 학장)	2,000,000원
박 승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강사료전액
김중위 (환경부장관)	장바구니 제공
이길녀 (길병원이사장)	기념품 제공
해태음료	음료제공
경북여협	다과제공
경주여협	〃
박광희 (경주시장)	〃
임진출 (경주시 민자당지구당 위원장)	〃

• 후원금 •

이용옥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0원
장병주 (국제여성승공연합 고문)	100,000원
문수자 (국제여성승공연합 회장)	50,000원
김숙자 (국제여성승공연합 부회장)	50,000원
강경화 (국제관계위원)	50,000원
박진숙 (한국간호조무사협회 경남지부장)	30,000원
지현숙 (대한어머니회 화성군 지회장)	30,000원
이경남 (국제존타서울클럽)	20,000원
최미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지부 상담실장)	20,000원
박부덕 (대한주부클럽 목포지부장)	20,000원
안산사 부녀복지과	20,000원

정순훈 (배재대학교 교수)	20,000원
강옥순 (한국퇴역여군회 회원)	10,000원
권정숙 (대한간호협회 임상간호사회 과장)	

김혜자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10,000원
권경행 (국제여성승공연합 이사)	10,000원
서준자 (국제여성승공연합 이사)	10,000원
박수정 (국제여성승공연합 강동지부장)	10,000원
이안순 (국제여성승공연합 이사)	10,000원
정봉순 (국제여성승공연합 자문위원)	10,000원
이종순 (국제여성승공연합 이사)	10,000원
윤형자 (국제여성승공연합 감사)	10,000원
송현주	10,000원
김수옥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10,000원
대한간호협회 경남지부	10,000원
호금옥 (안산YWCA 총무)	10,000원
이정자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태백시 지부장)	10,000원

• 위원회 오찬제공 •

김취복 (중앙부인회 회장, 조직관리위원)

* 바로 잡음: 지난호 후원자명단중 황명자
→ 황명순(국제폰타서울클럽), 전산호→전산초
(대한간호협회)로 바로잡습니다.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794-4560, 796-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무부부서사회감조기재출국근소사	회회회	이이이이	장장장장사사사사사사장장장장장장장	이박정이최강이앙김김정한현서최이박김	숙해심기순자식숙환애숙숙덕경회자주래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7-707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75-304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아파트 B-909 대구시 북구 노원2가 313-12 중구 을지로3가 지하상가 3구역 근화사 약국(11호)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1012-401 도봉구 수유5동 510-20 강남구 대치4동 910-6 현대빌라 101호 인천시 북구 산곡동 370-71 협성원 종로구 관철동 260 세븐빌당 501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3 청솔마을 성원아파트 703-1802 서대문구 북아현동 1-3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16-1002 강남구 개포동 강남아파트 1-208 양천구 목1동 목동아파트 505-501 용산구 한강로3가 40-316 강남구 역삼1동 670-12 노원구 중계본동 4블럭 신통아아파트 115동 603호	795-2233 599-1942 783-2924 053-944-1300 272-4986 503-4691 356-0071 561-2630 032-503-3493 732-9585 0342-713-3078 362-3687 0342-701-1436 574-2490 648-2002 792-5050 567-3234 934-7866
------------------	-----	------	-------------------	--------------------	--------------------	---	--

회원 단체

회 원 단 체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최영귀	회옥	중구 쌍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제례회연합회	한말숙	숙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대한여학사협회	이윤옥	기숙	도봉구 쌍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산협회	김용취	숙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김박애	복주	용산구 한남동 738-20 화성빌딩 302호	797-9185
중앙부인회	박영목	숙	성북구 모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김안	혜단	중구 명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김경중	오순	강남구 압구정동 408 미성유치원 208호	516-9608
한국부녀복지연합회	김인방	숙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508호	712-0713
한국여성생활공협회	김동욱	숙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786-121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박최	숙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우먼스클럽	은방동	회	성북구 모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박숙	순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국제존타한국연합회	최곽	자덕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비빌딩 507호	784-4851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이예준	자련	종로구 평창동 537-9	379-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왕준순	덕	서초구 서초동 1489-3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음	현수	자경	영등포구 여의도동 3가 3번지 2·3호 백제약국 4층	738-6006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서문	자	영등포구 신길1동 115-14	833-1623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김수순	자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미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회	김숙기	향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록빌딩 704호	842-4334
국제여성승공연합회	고정영	숙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통일여성안보회	윤수상	자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601호	797-7028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박하	효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정영숙	숙	동대문구 전농4동 582-5	244-5208
한국퇴역여군회	남상	자	성동구 군자동 327-5 삼호오피스텔 412호	214-2990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박하	민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한국자수문화협의회	정영숙	자	강남구 청담동5 경원하이츠텔 710호	546-5350
한·일여성친선협회	하영	자	중구 목정동 18 대학문화원 306호	273-7645
한·중여성교류협회	윤숙	자	광진구 화양동 48-3 용진빌딩 3층	463-2445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윤숙	자	서대문구 연희동 137-10 영원빌딩 4층	3141-7840

편집 후기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새싹들이 따스한 봄햇
볕을 맞으며 생명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러한 봄 기운을 맞으며 향후 여성단체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단체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뜻깊었다.
이번 지도자연수를 저력으로 살아 지자체 선
거와 북경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게 될 것
을 기대한다. 明

월간여성 · 1995년4월호 통권328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연숙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식·편집: 한라기획

발행날짜: 1995년4월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3-5196, 794-4560, 796-4560, 797-5778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서은경

위원: 김효자/나미레/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이선영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
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
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3-5196, 794-4560

신뢰의 쌍용
세계와 함께

휘발유에도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해물질은 줄이고 힘을 향상시킨

옥탄가 97휘발유



공해물질을 대폭 줄였습니다

산소함량이 높은 고성능 옥탄가 향상제로
옥탄가를 높이고 공해물질인 벤젠 등 방향족
화합물을 대폭줄인 고품질 저공해의
차세대형 환경상품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냅니다

옥탄가 97은 강력한 힘의 상징입니다.
엔진출력 향상과 노킹현상 제거로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쾌적한 승차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고갯길, 오래된 차 등에서
더욱 더 그 전가가 확인될 것입니다.

엔진을 보호합니다

최첨단 엔진청결제를 사용하여
엔진을 항상 깨끗하게 보호해 줍니다.
· 청결유지기능: 세차같은 청결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 퇴적물 제거기능: 퇴적물을 금속표면에서 제거시켜 줍니다.
· 금속보호막 형성기능: 부식물의 침투방지로
엔진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품질 고강화에 앞장서는
쌍용정유
□ 고객상담안내 TEL: 080-021-3051 (수신자부담)
FAX: 080-021-3052